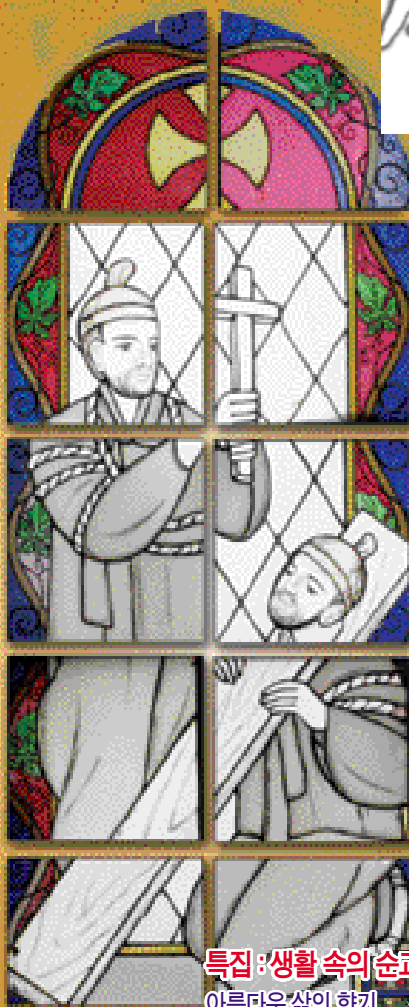




특집: 생활 속의 순교

아름다운 삶의 향기 군산 송치과 송창권 원장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김봉희 세례자 요한 신부
신앙의 숨결을 따라 원주 소양 대승마을

10

2005 | 가을호



쌍백합 제호 의미

‘하느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펴내는 ‘쌍백합’이라는 제호는 한국 천주교 순교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로 추앙받고 있는 우리 고장이 낳은 유종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를 상징한다.

‘쌍백합’은 백합처럼 순결한 삶과 목숨을 바쳐 가며 신앙을 지킨 두 분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표상으로 삼자는 뜻을 담고 있다.



순교는 복음의 씨앗
서슬퍼런 칼날 아래 숨겨간
이 땅의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의 청솔 같은 기상
지상에서 천상까지 찬미 바쳐올
빛나는 순교의 월계관이어!

-전주 전통성당 채색 유리화
사진|유백영(가브리엘 · 가톨릭 사진가회)

4 시와 영상이 만나는 자리 | 시 • 정인섭 | 사진 · 박희곤

특집 : 생활 속의 순교

- 28 특별 좌담회 | 편집부
- 36 브레시디움 탐방 중앙성당 | '우리즐거움의 연유' | 허남
- 41 아픔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 채금자
- 44 날개 처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 박미영
- 48 봉사의 마음으로 선교의 씨앗 뿌려 | 길성수

배움마당

- 8 이콘여행 | 스몰렌스크의 하느님의 어머니 | 정광신
- 9 목자의 지팡이 | 영원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 놓고 살 때 | 이병호 주교
- 22 세계 신앙 축제와 풍습 | 가장 미국적인 명절 추수 감사절 | 이병렬
- 26 토막교리 | 레지오 마리아 조직과 그 명칭은 | 편집부
- 52 덕자의 환경 이야기 | 쓰레기에 대한 고민 | 이덕자
- 53 아름다운 삶의 향기 | 군산 송치과 송창권 원장 | 이덕자
- 58 영성의 샘 | 성체성사의 영성(下) | 윤양호 신부
- 67 건강하게 사세요 | 가을철 건강관리 이렇게 | 송승현
- 79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 김봉희 세례자 요한 치명자신 신부 | 안여진
- 83 신앙의 숨결을 따라 | 완주 소양 대승마을 | 이규현
- 104 생활의 지혜 | 여름옷의 아무진 관리와 보관 | 편집부
- 105 대중문화 속 복음 읽기 | 베토벤 교향곡 9번-ode to joy | 서석희 신부
- 109 내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 | 루가 10,30-35 | 허경택

나눔마당

- 64 사랑이 머무는 곳 | 모악산 기슭 소화 진달네집 | 김혜선
- 72 영혼의 쉼터 | 편집부
- 78 쉬어가는 곳 | 황의성
- 88 해외 성지순례기 |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 아씨시 | 이정혁
- 94 어른과 함께 읽는 동화 | 도깨비와 오줌싸개 | 김여울
- 99 그림 묵상 | 이재승
- 100 잊지 못할 사목 일기 |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 김의철 신부
- 112 웃으며 삽시다 | 편집부
- 125 가슴으로 읽는 만화 | 문정섭
- 128 백합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 편집부
- 143 쌍백합을 읽고 | 편집부

다시 읽고 싶은 글모음

- 114 나는 낙인 찍힌 왕신자 | 윤대근
- 115 말씀의 위력 | 김민호
- 117 성가정의 축복 | 이경희
- 118 복음의 날개 달고 '활활' | 강종민
- 120 남보다 하루를 먼저 살아가며 | 장영란
- 121 멀리 돌아온 길 | 채순이
- 123 묵상 하나 | 김영곤

독자사랑방

- 130 기쁨과 은총의 삶 | 임명자 수녀
- 132 엄마 얼굴 | 서순옥
- 133 아버지의 자리 | 기옥란
- 134 나의 십자가 | 김 루시아
- 136 신앙의 끈이 되어 주시는 대모님께 | 이옥자

알림마당

- 6 사진으로 보는 교구소식 | 편집부
- 15 우리본당 자랑거리 | 익산 창인동본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풍성 | 박미경
- 19 우리본당 자랑거리 | 전주 덕진본당 바오로 성서대학 | 김계숙
- 69 성가정 체험수기 | 2004 성가정 축복장 수상 | 주영승 · 김현숙
- 73 화제의 인물 | 장애인 손수레 협회 회장 임희석 형제 | 심연무
- 126 간추린 교구소식 | 편집부
- 138 미리보는 교구 계시판 | 편집부
- 140 볼만한 책 · 비디오 · 음반 | 편집부



가을 노래

정인섭 (안드레아 · 평화동 본당)

하늘에 난 길
구름이 간 길
우리가 오래 더터온
자갈과 그들의 세월

눈으로 남는 곳에
마음에 묻은 곳에
숯막 세우고

숯불 피우고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다가
불고 남은 바람만 쌓이면
불리어 가리



사진 | 박희곤(요셉 · 가톨릭사진가회)



이병호 주교 수해 공소, 신자방문 위로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8월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진안, 무주, 장계 본당 관할 공소 및 신자들을 방문, 함께 기도하고 대담을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로방문에서 피해지역 신자들은 긴박했던 당시 상황과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교구장의 위로 방문을 무척 기뻐하였다.



가톨릭 신학원 졸업생 재교육

전주교구 가톨릭신학원(원장=김혁태 신부)은 졸업생(교리교육과, 신앙연수와, 성서교육과) 재교육으로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법'을 주제(강사=김진화 신부)로 하여 6월 4일, 11일, 18일, 3주 동안 100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하였다.



교구 그룹사운드 창세기 창세기 창세기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 2시부터 교구 그룹사운드 창세기(지도=김정현 신부, 대표=서영주) 정기공연이 1200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등 생활성가를 주제로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 고전문화연구원 축복식



지난 6월 11일(토) 천호성지 자락에 호남교회 사연구소(소장=김진소 신부)와 한국 고전문화연구원(소장=조광 교수)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동을 신축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제21차 전주교구 울뜨레야



전주교구 울뜨레야(지도신부=여혁구)가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해성중·고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마태 5.16). 를 주제로 제1부 말씀의 잔치와 제2부 우정의 시간, 제3부 사도의 시간, 제4부 파견미사로 진행되었다.

성체 현양대회



지난 6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전주 치명자산 광장에서 성체 현양대회를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성체현양대회는 성체성사의 해이자, 전주교구에서는 제 10회로, 3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스몰렌스크의 하느님의 어머니

러시아 : 16세기

이 이콘은 호디지트리아(hodigitri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성모님의 왼팔에 안기어 왼손에 두루마리를 쥐시고, 오른손으로는 인류를 향해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모님의 오른손이 이분을 가리키고 있는 양식의 이콘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모님의 팔에 안긴 성자는 ‘永遠 이전의 하느님’과 세상에 오신 강생한 지혜와 신성한 권위를 지닌 분

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모님과 그 아드님 사이에 다정함은 생략된 채 성모님은 ‘길을 가리키는 자’ 즉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녀의 아드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안내자(요한 2,5)인 것이다. 성모님은 내적인 깨어 있음과 사랑의 관상적인 시선을 보여주며, 성자에게서 발현되는 거룩한 현존의 신비로 이끈다. ‘하느님의 어머니’나 ‘하느님을 낳으신 분’의 용어는 강생의 실재, 즉 강생하신 성자의 신성과 인성의 동재(同在)함을 강조한다.

이 이콘은 기도와 경배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적으로 인식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소명의 상징이며 전형으로 제시한다.

성모님과 교회는 온화함, 사랑, 견실함과 내적 확신을 가지고 육화한 말씀이며,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요한 14,6)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정광신(쥬셉피나)



영원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 놓고 살 때

이 병 호 빈첸시오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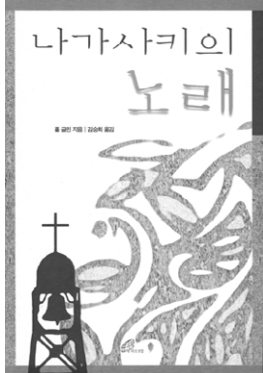
‘생활 속의 순교’ 이런 주제를 대하니 최근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읽은 책이 생각난다. 그래서 그 책의 주요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대신하려 한다.

고함치는 히로시마 기도하는 나가사키

I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간 곳이다. 그러나 똑같은 참상을 겪고도 두 도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운 대조를 보였다.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히로시마는 신랄하고 소란스럽고 매우 정치적이고 좌파적이고 반미적

인 색채가 농후하다. 그러나 나가사키는 슬프지만 고요하고 명상적이며 비정치적이고 기도로 충만하다. 전자가 분노로 팍 움켜쥔 주먹이라면 후자는 마주잡고 기도하는 손이다.” 와세다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시게루는 이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 “고함치는 히로시마, 기도하는 나가사키.”

나가사키의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던가? 온갖 참혹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400



여 년 동안 끈
질기게 이어져
온 그리스도
신앙의 분위기
와 정신이 바

로 그것이다. 그리고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장성하여 뒤늦게 그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주로 아내를 통해서 나가사키 지역의 오랜 신앙 유산을 가장 잘 전수받아 충실히 살아낸 인물이다.

나가이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던 1951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그 기간 동안 20권의 책을 썼는데, 이 모든 저작물과 다른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폴 그린 신부는 <나가사키의 노래>(폴 그린/김송희 옮김, 2005.6.19, 바오로 딸)에서 이 인물을 우리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있다.

둘 같은 무신론 어머니의 죽음으로 허물어져

2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위대한 다윈이 자연의 존재법칙을 증명해 냈고 고집 센 무신론자요 사전에 ‘불가지론자’라는 단어를 수록한 장본인인 토머스 헉슬리가 모든 종교를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버렸다고 이해하고 있던 선

생들” 밑에서 나가이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서 입학한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도 무신론적 분위기는 덜하지 않았다. 첫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교수는 학생들에게 시체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제군들, 이것이 우리의 연구 대상인 사람이다. 신체의 각 부분을 지닌 몸이야. 말하자면 자네들이 관찰하고 무게를 달고 검사하고 측량할 물체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둘 같이 굳은 그의 무신론적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 잠시 후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까지 교수해 오던 생각의 틀을 단번에 허물어뜨렸다.

나를 세상에 내보내고 키워주신 어머니, 나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어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눈으로 단호히 말했다. ‘네 어미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어미의 살아 있는 영이 언제나 사랑하는 다카시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영혼 따위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던 내게 어머니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산다는 것을 어머니의 눈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직관, 확신을 가져다주는 직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생긴 무신론의 틈새 사이로 들어와 점점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써 나가이를 신앙의 문으로 이끌어 준 것은 파스칼의 팡세였다. “인간 이성으로는 최상의 객관적인 실재에 도달할 수 없으며, 다만 저급한 과학적 진리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단순한 과학적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더 높은 진리는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악되기보다는 주어진다. 이성으로 파악되는 과학적 진리와는 달리 더 높은 진리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간절히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주어지고,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주어진다.” 이런 파스칼의 말은 그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다.



나가이 다케시 박사

수학자요 철학자이며 신비가인 이 프랑스인은 나가이가 익숙해 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언어를 구사한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한 말 가운데 매력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들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사람한테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이 아직 믿을 수 없다고 해도 기도나 미사를 무시하지는 말라.”

나가이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작은 원자폭탄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다. 의과대학의 방사선과 교수로서 초보적인 엑스레이 기계를 이용한 각종 실험과 학생들의 훈련을 도맡아 하다 보니 죽음의 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큰 위험을 안고 살았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그는 말하곤 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학생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핵을 발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저도 위험을 피할 수 없지요.” 결국 그는 몸에 큰 이상을 느꼈고, 진단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환자 나가이는 불치의 백혈병에 걸렸음. 예상 수명은 앞으로 2,3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됨.”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본인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 큰 어려움은 자신이 죽은 다음 아이들을 맡아 길러야 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숨막히는 순간이 다가왔고, 나가이의 시선이 아내의 눈과 마주쳤다. 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마침내 그가 사실을 털어놓았고 미도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듣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가족 제단에 촛불을 켰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꿇어앉아 그녀의 가문이 250년 동안 박해를 견디면서 지켜온 십자가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도 그녀의 뒤에서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었는데, 바로 그 때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가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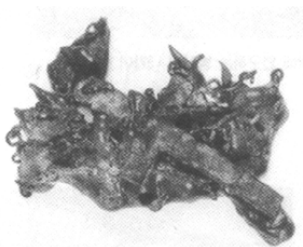
앉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다. 아내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목표만 추구해왔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결혼 전에,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말했지요.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삶도 죽음도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당신은 중요한 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당신의 수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으나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고, 그 다음날은 ‘새 사람이 되어’ 엑스선과로 돌아왔다고 일기에 썼다. “아내가 비극적인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말도 못하게 막음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나가이가 일하던 병원을 포함한 온 도시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다친 사람들을 돌보다가 뒤늦게 집, 더 정확히 말해서, 집이 있던 자리에 돌아와 폐허 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던 순간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저쪽에 있는 저 검은 덩어리는 무엇일까? 바로 아내였다. 검게 타버린 아내의 두개골과 엉덩이



아들 미코토를 안고 있는 나가이 부부



녹아버린 목주알 · 새까맣게 타버린 아내의 뼈와 함께 있는 것을 나가이가 찾아냈다.

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저것은 무엇일까? 비록 구슬은 모두 녹아버렸지만 줄과 십자가는 흔적이 남아 있어 그것이 아내가 자주 손가락으로 굴리며 기도하던 목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흐느끼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게 가장 소중하신 하느님, 아내가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어머니시여, 죽는 순간까지 신실한 아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야 할 길은 하느님의 섭리

3 이제 어머니라는 ‘파랑새’를 기억 속에서 밖에 만날 수 없게 된 어린 딸 가야노와 그보다 몇 살 위인 또 하나의 자식을 돌볼 책임이 온전히 나가이에게 떨어졌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일찍부터 울지 않는 습성을 터득해 버렸다. 그 점을 염려하면서 나가이

뼈, 척추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아내의 오른손 뼈마디 사

는 이렇게 쓴다. “어린 시절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울면 어머니가 달려와 달래줄 것을 우리는 안다. 가야노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눈이 붓도록 울고 싶을 때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있는 어린이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야노가 여덟 살, 마코토가 열네 살이었을 때,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쓴 책에서 그는 말한다. “너희는 곧 고아가 될 테고 따라서 가파르고 거칠고 외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너희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통을 잠재우는 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너희가 걸어야 할 외로운 길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위해 택하신 것이다! 그 길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자주 하느님께 기도로 물어보아라. 기도란 불행을 떨쳐버리기 위한 심리 전술도, 현명한 방법도 아니다. 기도는 오직 삶의 신비를 드러내는 진실한 자세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질병과 고난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거나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성인들, 예컨대 리



병상의 나가이와 두 자녀

지외의 예수 아기 데레사와 루르드의 벨라
텃타 같은 분들의 삶을 보아라.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
서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만
일 그래야 한다면 이 세상의 병자들은 어
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 남의 도움 없이
는 꿈쩍도 할 수 없는 나를 보아라. 병상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을 이 세상에 ‘쓸모 있
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쓸모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처
한 상황을 선택한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열
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너희
가 받은 몫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너희가
각료든 가구 제조업자든, 선장이든 선실

에서 일하는 급사든 더 유리할 것도 더 불
리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도하시오. 제발 기도하시오”

4

자연이라는 바다 속에 숨쉬고
살면서도 초자연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연구를 하든, 사
회정의를 위해 싸우든, 사랑을 하든, 그렇
게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원의 빛
깔을 띠고 삶은 기쁘고 희망차고 자유로워
진다.

나가이는 그렇게 믿었다. “인간이 아메
바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고 말하는 과
학자들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
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가엾은 일입
니까!”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초자연에 통
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무한의
색채를 띠는지를 그는 잘 알았다. “나가이
는 성 프란치스코가 글라라 성녀에게 느꼈
던 사랑, 곧 순수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았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미도리의 유
골을 발견하고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
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초자연에 창
문을 열어놓고 살아라. 그래서 저자는 책
을 끝내며 말한다. “나가이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한 마디에 이 땅의 순례자들
을 위한 그의 충고가 담겨 있다. ‘기도하
시오. 제발 기도하시오’.”



우리 본당 자랑거리

익산 창인동본당-창립 70주년 기념행사 풍성

70년 전통 바탕 새 도약 준비



전북 익산에 있는 창인동성당이 지난 6월 26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의미있는 행사를 치렀다. 전주 교구에는 조선말 천주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말해주는 전동성당을 비롯해 오래된 성당이 많은 편인데 남원 쌍교동성당과 함께 70년의 신심을

키워온 곳이 창인동성당이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신부님이 다녀가신 본당이라 성당 입구에는 초대 신부님부터 지금까지 20여 분의 사진과 옛날 성당 건물 앞에서 찍은 신자들의 사진이 걸려있어 이 성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도 모르는 신자들의 오래된 흑백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그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였다.

창인동성당은 역사가 깊은 만큼 많은 단체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성령기도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도 선구적 역할을 해 왔고, 다른 본당에 앞서 신용조합도 만드는 등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다.

익산 지역의 기초 닦아

1880년 솔아단과 새실(현 신흥리)에 공소가 설립될 즈음, 익산 일대에 신자가 거주하기 시작하여 1896년에는 익산 공소가 설립되었다. 1926년경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추세 속에서 전라도 각지에서 익산 지역으로 많은 신자 세대가 전입해 왔다. 그들 중 몇 명은 익산에서 5리쯤 떨어진, 당시 전주본당 소속 새실 공소로 가서 성사를 받으며 각자의 신앙을 지속하여 오늘날 익산 지역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 그 후 신자들도 늘고 그들의 신앙심도 점점 뜨거워져 전주본당에 요청하여 1931년 가을에 첫 판공을 치루어 익산 지역 본

당의 터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35년 본당으로 승격

1931년 군산성당(현 둔용동성당)이 설립되고, 1932년 익산 공소는 군산성당 관할이 되었다. 그 후로도 신자가 날로 증가하여 1935년 6월 본당으로 승격되고, 하한주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하 신부는 부임 후 본당에 평의회(성당 재정 담당), 유지회(성당 건축 재원 담당)를 조직하여 성당 유지와 장래의 발전을 준비하고, 공소의 자립을 꾀하는 한편, 본당과 공소에 성모 포교 부인단을 설립하여 전교와 성가정 확립, 자녀교육 및 부인들의 정신개발에 힘썼다. 그리고 전라북도 천주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 청년단 설립을 발기하였고, 천주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2세 교육을 위하여 소년 십자군을 창설(1938.1.2)하였다.

1947년 당시는 성당이 아주 협소한 데다가 교통도 무척 불편하여 본당의 체제를 갖추고 새 성당을 신축하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1955년 162평의 큰 성당을 준공할 수 있었다. 이후 10여 년간 본당의 조직과 새 성전 건립에 온 힘을 기울여, 지역 인구 8만 명에 신자 1,600명(본당 1,000명, 공소 600명), 그리고 해마다 평균 100명의 영세자를 배출하는 본당이 되

었다.

1967년 12월에 주현동본당을 분리 신설하였고, 인보성체회 분원을 철수하고 성바오로수녀회 분원이 설치되었다. 1975년에 본당 소식지도 창간했다.

1979년 새 성당 신축 봉헌

1977년 4월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성당부지를 정리하고 1978년 새 성당을 신축하던 중, 이리역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복구활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 1979년 새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 성전 신축공사에는 모든 신자들이 동참하여 힘과 정성을 바쳤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봉헌한 이들도 많았다.

1981년 본당 34개 구역 공동체는 자발적인 참여와 지도로 매달 1회 사도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역 형제회 모임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여 개의 레지오 브레시디움 이 창단되었고, 여교사회, 율트레야, 루가회, 돈보스코회, 근로자의 집 등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영등동본당, 1988

년에는 송학동본당을 분리 신설할 정도로 익산지역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70주년 기념행사 3개월 동안 이뤄져

현재 창인동성당은 익산의 상업 행정 종교적 중심이 주변부로 옮겨지면서 신자 수가 줄어들고 신자들의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성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본당 신자들은 익산 시내에 있는 10개 본당의 모태 본당 신자로서 다른 본당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지역 전교와 개인성화, 그리고 구역 및 가정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70주년 기념 행사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들의 신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4월에 열린 사랑 나눔의 바자회이다. 구역별로 준비한 이 행사는 치르기 전에 어렵게 생각되던 일들을 힘을 모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어린



아이와 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구역 신자들과는 물론이고 다른 구역 신자들과의 친교도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5월에는 성모의 밤 행사와 성모당 앞 기도, 그리고 전 신자 가정성화 성체찬미와 조배의 시간을 가졌고, 천호성지에서 여산 순교성지까지 도보순례하기도 했으며, 29일에는 전 신자가 성체거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도보순례에는 80여 명의 신자가 참여하였는데, 60대 후반의 한 자매님은 가는 도중 다리에 쥐가 났지만 차를 타지 않고 끝까지 도보로 순례의 여정을 같이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일요일에 이루어진 성체거동은 70주년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신심을 새로이 다지고 성체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6월에는 70주년 기념미사와 43명의 견진식을 가진 후 성당차원의 조출한 자축연을 열었다.

영적 · 물질 봉헌 활기

이번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특별 9일기도와 묵주기도, 미사참례 등 영적 봉헌은 물론이고, 성전 보수나 가톨릭

센터 건축을 위한 물질 봉헌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년에 걸쳐 봉헌금을 약정하였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도 자발적으로 봉헌하시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당신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라도 꼭 낼 수 있게 유언을 하셨다는 사연에 다른 신자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전통보존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세상 많은 일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신자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져야 깊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성장할 것이다. 창인동성당의 70주년 기념행사를 엿보는 동안, 오랜 역사를 지닌 성당답게 선배신자들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들의 특별한 노력이 느껴졌다.

오늘따라 마을 어귀의 나이 많은 정자나무가 새롭다. 그는 묵묵히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그 마을의 역사를 자신의 나이테에 차곡차곡 간직하며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 창인동성당 신자들도 그 정자나무와 같이 그들의 오랜 역사 안에서 그들만의 자긍심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리라.

취재 | 박미경(크리스티나)



우리 본당 사랑거리

전주 덕진본당-바오로 성서대학

성서의 단맛 온 마음으로

하느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맛에 젖어 든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기자는 그간의 신앙 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성서를 세 번이나 통독하고, 또 성서 40주간도 했건만 성서는 늘 어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기자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말씀에 폭 빠져 살고 있다는 본당이 있어 여간 반갑지 않다. 타종교인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비아냥하는 것은 성서를 등한시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성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절대미각의 소유자들이 있다면 실로 감탄할 일이 아닌가?

말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달음에 도착한 덕진본당(주임=양경배 신부)은 염천 땀별에도 활력이 넘쳐 있었다. 교중

미사에 참석하니 신자들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지만, 그분들의 표정은 살아 있는 성령으로 탱탱하게 빛이 났다.

덕진본당은 도시의 공동화로 고령 인구가 늘어 사목에 어려움이 많아,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온 바오로 성서모임을 초석으로 새로운 성서반 운영을 모색하게 되었고, 본당의 가정성서분과(김정옥·아가페)를 활용하여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유도하였단다. 바오로 성서대학이라고 품격을 높여 신자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한 것도 성공 요인이 되었다.

출석률 85% 달해 놀라워

지난 해 3월부터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바오로 성서대학을 열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오후 8시, 학생장=진홍철 요셉), 목요일(오후 2시, 학생장=이강호 요한)이 개설되어왔다. 본당의 주일 미사 참여자가 700여 명인데 비해 현재 대학에 등록한 인원이 195명이라니 입이 썩 벌어진다. 현재 170명 정도 참석하고 있어 출석률은 85%,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타본당의 성서 교실을 보면 갈수록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덕진본당의 출석률은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다. 40세에서 86세까지의 어르신들이 수강하고, 그 중에서 60명의 형제분들이 참석한다니 성별 연령층도 다양하다 할 수 있겠다. 지난해에는 130명의 인원으로 신약을 공부해 117명이 수료하였다.

이처럼 본당 공동체가 성서에 맞닿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시스템이 잘 되어야 나라도 잘 되듯이 대학에 맞갖은 조직체계에 있었다. 월 3000원의 수강료와 강사, 학생장, 재무, 반장, 조장의 조직

으로 철저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화요일과 목요일의 진도를 똑같이 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하더라도, 소속 반에 관계없이 참석하면 주 1회 출석을 인정하였다. 헨리코 형제반은 1년 반 동안 100% 출석이며, 주 2회 참석하시는 분도 많고.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바오로 딸의 <새로 나는 성서공부>라는 교재도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 매개체였다. 실제로 너무 교재가 쉬워 은연중에 반발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만족하고 있다고. 기사도 검토해보니 누구나 하느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도록 평이한 짜임새가 눈길을 끌었다. 색깔 공부와 나눔 시간이 있어 신자들의 흥미를 돋구워 준다. 어떤 분은 미국과 캐나다 여행 중에도 이 교재를 들고 갔을 정도란다. 이제는 초·중·고등부 주일 학교 학생들의 교리 공부도 이 책으로 대체하였다니 교재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훌륭한 강사진 확보

바오로 딸 수도회를 통하여 신심 깊은 고충곤(바오로), 고순희(테레사) 강사진을 확보한 것도 큰 몫이라고. 월 1회 시청각 교육과 생활에서 우리나라 훌륭한 교수법에 모두들 동감해 참석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고. 또 찰흙으로 구유를 만들고, 성서 인물들을 색칠하여 전시회도 열었는데 호응이 대단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맛을 음미하며 영의 삶과 피를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평신도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란다. 주임신부님은 대대적인 홍보맨이었고, 관심과 격려 차원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역할만 했다고. 강의와 운영 이 모두를 신자들이 직접 참여토록 해 자생력을 키워준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사제나 수도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사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임신부님은 재차 강조하신다.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성서통독운동을 통해 성서통독자가 145명이나 나왔다니, 이제 그 자생력은 토대에 올라섰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타분당에서도 바오로 성서대학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주교구 가톨릭센터 신축 기금 마련



에도 바오로 성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구 내 분당 중 가장 먼저 할당액을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성탄 때 성대한 졸업식 준비

지난 6월에는 바오로 성서대학 일일 피정을 가졌고, 금년 12월 25일 성탄 때는 주교님을 모시고 제1회 바오로 성서대학 졸업식을 할 예정이라한다. 일반 대학처럼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성대한 졸업 파티를 할 계획이며 졸업앨범도 제작할 예정이라니, 기자도 꼭 다시 한 번 학사모를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닌가.

갈수록 젊은 신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지만, 성서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주임 신부님의 말처럼, 기자는 덕진분당에서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무더위조차도 즐거웠다.

취재 | 김계숙(요안나)

사진 | 이규현(루가)



가장 미국적인 명절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이병렬(필립보 · 복자본당)

1. 추수감사절의 기원

인류는 신께서 인간에게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첫 열매를 봉헌하고 축제를 즐기며 감사를 드려왔는데, 고대로부터 추수 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곡물 추수와 관련되어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 제사는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아홉째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린”(창 4,3-4)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

과 아벨의 제사이다.

성서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의 시초를 보면 “너희가 밭에서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의 만물을 바치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출 23,16).로 나타난다.

2. 추수감사절의 유래

추수감사절을 따로 정한 것은 미국 이주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머스항을 출발한 배는 폭풍우와 여러 어려움을 겪고 1620년 11월, 뉴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하여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항해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겨울은 혹독하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청교도들은 이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가톨릭의 절기로 생각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크리스마스를 대신한 그들의 절기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각 나라의 민속적인 풍습으로 행해졌던 추수 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서 지켜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거행되었던 1621년의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이다.

1620년 9월, 영국 청교도 가운데 ‘필그림(pilgrim)’이라 불리던 기독교인들이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해 그들의 종교적 삶을 시작할 새로운 땅을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102명이 타고 영국 플리

만 했다. 많은 병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구는 출발할 때의 절반으로 줄었고, 건강한 사람이 드물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고, 건물을 지었다. 이듬해 봄에 그들은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방법을 배우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가을에는 풍년이 들어 비로소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이 잡혔다. 청교도들은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여 신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미국인들의 선조가 되는 이들 청교도들(필름 파더즈, pilgrim fathers)이 추수한 곡식, 과일과 함께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

아서 별인 이 축제가 미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다.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에 의해 국경일로 선포되어 3대 제퍼슨 대통령 이후 몇 개 주에서만 지켜왔는데,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고 미국 전체의 국경일로 다시 선포했다.

3. 추수감사절의 풍습

추수감사절인 목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4일간 연휴를 즐기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도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신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며 미국 민요 ‘갓 블레스 아메리카 (God bless America)’를 부른다. 이날에는 가정마다 추수감사절 음식인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은 첫 추수감사절 때 새 사냥을 했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와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하여 실제로 요리를 위해 희생되는 칠면조의 수가 4000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는 칠면조 한 마리를 놓아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

식탁에 5개의 옥수수를 올려 놓는데, 이는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옥수수 5개를 의미한다. 이에 각 가정의 부모는 첫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그들 선조들의 수고를 설명해주며 자녀들과 함께 그 옥수수를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보스턴 코먼’에서 점등식을 하고 거리 곳곳에서는 유명한 캐릭터 인형들과 악대와 가장행렬이 이어진다. 빌딩 사이로 하늘에 거대한 배 모양의 풍선을 띄우거나 불꽃놀이를 벌이고 고층 빌딩에서는 색종이를 뿌려 명절을 축하한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소규모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하고 마을 운동장에서는 풋볼 시합이 벌어지기도 한다.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축제로 행사의 폐막과 더불어 미국 전역에서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밝혀지고 1년 동안 꿈꿨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4. 뉴욕 메이시 백화점의 세계적인 퍼레이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가장 화려하게 개최되는 곳은 뉴욕이다. 11월 넷

째 목요일,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센트럴 파크의 모퉁이에서부터 34번가의 메이시 백화점에 이르는 거리는 축제의 물결로 뒤덮인다. 이 행사는 해마다 거의 꾸준히 열려서 올해로 75회를 맞이한다. 처음 행사가 열린 1920년에는 메이시 백화점 점원들이 어릿광대, 카우보이, 기사 등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에서 빌린 25마리 동물과 장식한 마차, 브라스밴드까지 동원해 시가행진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행렬은 굉장한 호응을 얻어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1934년에는 100만 명의 군중이 도로 가에서 행진을 지켜보았고, TV가 보급된 1950년대부터는 TV 생중계를 통하여 미국 전체가 메이시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지켜보았다.

이 행사를 더욱 빛내는 것은 하늘에 띄워놓은 거대한 풍선이다. 1927년대부터 고양이 펠릭스 풍선을 비롯해서 스누피,

우드스톡,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뽀빠이, 핑크 팬더, 바니, 가필드,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풍선으로 제작되어 뉴욕 상공에 떠올랐다. 원래 의미인 신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로서 상업성이 강화된 것이 오늘날 미국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다.

5. 가톨릭과 추수감사절

가톨릭의 공식 절기에는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각 나라의 명절에 맞추어 '명절 미사'를 드리므로 북미 지역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명절 미사로서 추

수감사절을 지킨다. 미국 가톨릭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미사를 올리고, 한국에서는 추석 때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며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를 올린다.



레지오 마리애 조직과 그 명칭은



레지오 마리애 첫 회합때 모신 성모상

레지오 마리애는 ‘은총의 중재자시요 하자 없으신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고 봉사하는 신심단체이다.

후원부대인 협조단원과 활동단원이 있는데 10여 명의 행동단원들이 브레시디움(支團)을 이루고, 여러 개의 브레시디움이 평의회인 꾸리아를 이루고, 여러 개의 꾸리아(지방본부)가 국가평의회인 세나투스(지구본부 또는

교구본부)를 이루며, 중앙평의회인 콘칠리움(세계본부)을 이룬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조직과 명칭을 따서 붙인 것이다.



순교의 일반적 의미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다. 우리 교회에서의 순교는 최상의 은총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최고 표현이며 그분이 특별한 은총으로 주시는 신앙의 열매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옛날처럼 참혹한 박해는 겪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나 각자에게 다가오는 신앙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요소들이 있다.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신앙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순교의 어원은 증거·증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증언하고 증거해야 할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이다.

쌍백합 가을호에서는 봉사활동의 무대인 레지오 마리에 활동에서, 복음전파의 최일선인 선교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교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과 단체를 조명하여 특집으로 꾸며 본다.

28 | 특별 좌담회 | 편집부

36 | 브레시디움 탐방 중앙성당- '우리 즐거움의 연유' | 허남

41 | 아픔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 채금자

44 | 날개 처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 박미영

48 | 봉사의 마음으로 선교의 씨앗 뿌려 | 길성수

-특별 좌담회-

도입 50주년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과거 성찰 · 현재 진단 · 미래 조망

일시 : 2005년 7월 22일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센터 회의실

참석자 :

김광태 사목국장 신부

유병환 제2대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단장

김일부 제 6~7대 단장

강상근 현 단장

신태용 중앙 꼬미시움 단장

사회 : 양지향 쌍백합 편집위원장

‘쇠뿔도 구부러진다’는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다섯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이

면 전주교구가 설립된 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방인 자치교구로서 오랜 역사와 자긍심이 큰 가운데 올해로 레지오 마리아가 우리 교구에 도입된 지 50주년이 돼 지난 5월 5일에 의미 있고 성대한 신앙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과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 같은 날일 정도로 한국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성모님 군대의 일선 선봉장으로서 활동해오시며 염천의 열기만큼이나 성모님 사랑이 두터우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레지오 마리아(이하 레지오)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좌담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사목국장 신부님께서 교구 레지오 도입 5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천주교회의 다양한 평신도 운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본당의 조직과 결합하여 전개된 운동은 레지오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를 비롯, 강력한 평신도 운동에 힘입어 1953년에 인구 2,154만 명에 신자수가 16만여 명에 불과하여 신자비율이 0.8%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50여 년 동안에 급격히 성장을 거듭하여 2004년 말 현재 신자수는 450여 만 명, 전체 인구대비 신자비율은 9.3%에 이르렀고 전주교구도 신자수가 16만7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신자비율이 8.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교세성장

의 배경을 평신도 운동의 차원에 고정시켜 본다면 그 동안 본당 조직과 긴밀히 결합하여 일선에서 복음전파의 첨병으로서 활약해온 레지오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말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레지오 자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변화가 적다는 것은 그 동안 이 운동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대의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목적인 맥락에서 소공동체 운동과 레지오가 조직이나 목적, 실천 방식, 영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로 대립관계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레지오가 고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의 선익

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 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한다면 레지오의 의미와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동안 레지오 단장으로 활동해오신 김 일부 단장님께서 레지오 조직과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레지오는 교회가 공인한 신심단체로서 총사령관인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교회의 싸움

레지오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목포에서 시작된 레지오는 현재 광주, 서울, 대구 세나투스로 나누어져 있고, 2만9천여 개의 프레스비디움과 행동단원 29만 명, 협조단원 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병환 단장님께서 레지오의 주요 활동 내용과 체험, 보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레지오 단원은 일 주일에 한 번 회합을 가지며 한 주간에 실시한 활동에 대해

“
본당조직 긴밀 결합
복음전파의 ‘침병’
”



김광태 신부

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영적 군대이며 단원들의 충성, 덕행,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로마 군단을 본따 군대 형태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원들이 성모마리아의 겸손, 순명, 기도, 고행, 인내, 순결, 지혜, 희생 정신을 본받아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레지오 조직을 보면 가장 기본 단위인 프레스비디움부터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아, 세나투스, 최고 통솔기관인 끈칠리움

여 보고를 하고 다음주 활동과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끈칠리움의 승인과 교본이 명시하는 범위 안에서 교구장과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단원에게 알맞고 교회복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와 활동을 펼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전례봉사, 교리지도, 외인입교 권면, 냉담자 신앙회복 권면, 환자 방문, 임종교우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 자도 모르는 사람이

었으나 레지오 단원의 끊임없는 기도와 권 유덕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나아가 전 가족이 입교하는 은총을 입었으며, 레지 오에 가입, 활동을 하면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극심한 고통 을 겪고 있는 신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건강한 나 자신이 오히려 위 안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은총을 받고 돌아옵니다. 죽음에 임박한 신자의 연락을 받고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에 대해 유병환 단장님께서 짚어 주시지요.

-레지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양적으 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적 성장에 맞춰 질적인 발전이 이뤄진 긍정적인 측면 이 있지만 일부에선 부정적 성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간 활 동 보고 등 부담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해 회합에 나오지 않거나 늦게 참여하는 경우 도 있고, 그간 쌓은 두터운 정을 바탕으로



김일부 단장

“
세속적인 악의 세력과 대적
충성 · 덕행 · 용기 등 덕목 요구
”

방문하면 저를 기다리거나 한 것처럼 잠들 듯이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기도받기 위해서 나를 기다렸구나 하는 생 각이 들어 하느님을 느낍니다. 전교 대상 자를 찾지 못해 고민이 들 때 성모상 앞에 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 입교 권유를 하게 되고 세례로 이어지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레지오가 한국교회 발전에 큰 역할과 공헌 을 해 온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이지만 레지오가 일종의 친목단체로 변질

주간 회합이 끝나면 끼리끼리 모여 대개 술좌석으로 연결되는 2차 회합이 이어지곤 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주간 회합에는 참석치 않은 사람이 2차 회합에는 참석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염불보다는 잣밥에 정신이 쏠린 본말이 전도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레지오가 친교나 친목 단 체로 변질된 경우는 가입 당시의 초심을 잃고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지오 본래의

목적과 정신으로 돌아가고 가입 초기의 열정과 관심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참여하면 이같은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레지오 단장을 맡은 강상근 단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어깨가 무거우실텐데 향후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지난번에 치른 레지오 도입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전 간부들과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대로서 마리아를 통한 승리

교체협 발표회 등을 전개, 내적인 작은 불씨를 모아 큰 횃불을 밝히는 응집력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레지오 침체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간부들과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간부들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교본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직책별 교육을 실시

“
전례 · 교리지도 · 외인 선교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적극 펼쳐
”



유병환 단장

를 한국 천주교회에 분명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오가 전교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회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자부할만한 일이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활동이 침체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화 경제적 다양한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레지오 정신의 희박과 사명감 부족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앙대회를 준비하면서 묵주기도 5억단 바치기, 헌혈운동, 성서필사, 연도대회, 선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고 간부들이 사명감을 갖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교회내에서 레지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용 단장님께서 레지오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레지오는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평신도 사도직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레지오는 공의회가 개최되

기 40여 년 이전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의회가 선언하는 평신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을 일찍부터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 이전부터 평신도 사도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선교 활동으로 세례자 수를 증가시켜 교세 확장과 교회 발전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레지오의 주된 활동은 선

수행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사목국장 신부님께서 레지오의 사목적, 영성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레지오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을 교회에 잘 새겨주고 그것을 개인의 신심만이 아닌 공동체적 투신으로 이끌어 주는 신심단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지오야말로 교회가 우려하는 여러 다양한 성모 신심들에 탁월한 모범이 될뿐 아



강상근 단장

“
간부들의 사명감 고취 위한
다양한 교육·토론회 등 개최
”

교이며 초창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일례로 전주 파티마의 모후 소속 단원들이 교리반 인도 통계를 보면 96년 2,903명, 97년 3,886명, 2000년 5,274명, 2003년 5,602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본당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레지오 단원을 동원하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본당 발전에 기여해 와 본당의 보배로서 역할을

나라 교회의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결핍되기 쉬운 사목적 협력에서도 우뚝 선 가장 교회적인 조직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본당의 사목에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목 동반자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공동체 운동이 도입되면서 레지오 스스로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지오와 소공동체 운동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

상입니다. 레지오든, 소공동체 운동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협력하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 존재 기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레지오 단원과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김광태 사목국장신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처럼

병행해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내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일부 단장

엄밀히 말해서 소공동체 운동은 레지오에 우선하는 존재 기반입니다. 소공동체 운동이 모든 신자의 문제요 관심사라면 레지오는 단체에 가입한 특정 신자의 문제요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소공동체 운동과 레지오는 상호대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
단원 수 급격 감소 · 활동 위축
교본 근거한 본래모습 찾아야
”



신태용 단장

50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레지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레지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지오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장점입니다. 레지오는 지역위주로 이뤄지는 소공동체 운동과 그 성격과 추구하는 정신이 다릅니다. 레지오는 그 나름대로 소공동체 운동도 그 나름대로, 장점을 살려 독자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펼친다면 대립하지 않고 둘 다

상호보완적입니다. 소공동체 운동과 레지오가 조화를 이룰 때 서로 발전하기 때문에 레지오 활성화가 소공동체 운동을 위축시킨다는 시각은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레지오 단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선교와 봉사활동 등 곳곳에 앞장서 자신의 성화와 교회공동체 발전에 앞장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유병환 단장

레지오 단원이 주 회합에 참석하여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항

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정신과 임무에 충실할 때 주변 신자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고, 단원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단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되고 쇄신된 삶과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면 그에 맞게 레지오도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상근 단장

레지오 단원들이 세속 일에 쫓겨 가장 중요한 선교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간

오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입니다.

-신태용 단장

2002년부터 레지오 단원수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활동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교와 봉사활동 기피,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사명감 부족, 소공동체와의 대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원들이 교본에 근거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단원들이 성직자나 수



양지향 편집장

“
과거 · 현재 바탕 미래 조명해
새롭게 나갈 길을 제시해야
”

부들도 사명감이 결여돼 있으며 일이 귀찮다고 간부직 맡기를 꺼려하여 평단원으로 남아있는 무사안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적 지도자의 관심 부족과 지나친 관여로 레지오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딛고 단원들이 성가정을 이루고 어린양을 찾아 영세시키고 냉담자를 회두시키는데 앞장 서고 규율을 준수하고 투철한 정신무장으로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활동을 한다면 레지

오자처럼 하느님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지만 세상의 일에서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노력을 경주했으면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맥을 못추는 한낮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레지오의 문제점과 발전, 개선방향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쌍백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리 | 박종희(이나시오)

사진 | 서장경(대건 안드레아)

쁘레시디움 탐방-중앙성당 ‘우리즐거움의 연유’

출산 진통이 시작돼도
몸이 크게 부상 당해도
타지서 차가 고장나도

회합만은 ‘꼭’

가장 모범적인 뿌레시디움을 탐방하기 위해 전주 중앙본당(주임=김동준 신부) 레지오 마리아에 ‘우리즐거움의 연유’ 뿌레시디움(단장=이만형 요셉)을 찾았다. 폭염의 날씨에도 여섯 분이냐 참석하시어 지난날을 회고하며 들뜬 소년마냥 앞다투어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했다.

1958년 3월 19일에 창단하여 2450차 주회를 넘기고 48년째 들어선 ‘우리즐거움의 연유’ Pr.은 현재는 50대에서 70대 12명으로 구성된 남성팀이다. 겉으로는 여느 뿌레시디움과 별다름이 없어 보이지

만 반 세기의 전통과 모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단원들의 말에서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창단 초기 남녀 혼성팀 분위기 좋아

창단 당시에는 남녀 혼성팀으로 20대 아가씨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기혼자는 부부가 같이 활동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업도 중소기업 사장, 함석공, 대학교 강사, 교육공무원, 신문기자, 상인, 주부 등



교본 연구 발표 후 진지한 토론

다양하여 화젯거리가 많았단다. 그 동안 갈라져 나간 팀도 10여 개가 되는데 67년에 노송동성당으로 분리되면서 혼성팀에서 남성팀으로 되었다. 자매님들이 있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럽고 본인이 총각이라 아가씨 둘이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그 때는 부모님께서 연애결혼을 반대하던 때라서 연애도 하지 못했ادم 아쉬워하는, 지금은 이순이 님은 한 형제님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어려웠던 시절 애령회 활동 선교 토대

6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둘씩 꼭 짝을 지어 방문을 하면 샘에서 냉수한 그릇 떠 주어 마시면서 활동하기도 하고, “글쎄요 글쎄요” 하던 분도 있고, 문전

박대도 많이 받았단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애령회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2,3시에도 연락이 오면 달려가 전 단원들이 어찌나 숨씨가 좋았던지 자매님들은 한쪽에서는 재봉틀 3대를 가지고 다니며 수의를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었으며, 형제님들은 20대부터 염을 하고 입관을 하다보니 훈련이 된 선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불평 한 마디 없이 봉사하는 단원들을 보고 초상집에서는 탄복을 하여 장례가 끝나면 가족과 친척들까지 넉넉히 입교하는 선교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주회 출석에 얹힌 감동적 일화들

한 자매는 회합하다 아기를 낳을까봐

걱정이 되는 중에도 주회에 출석하고 집에 돌아가 출산했다. 일주일 후 부세부세한 모습으로 회합에 참석해 놀라는 단원들에게 다 성모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여 모두들 기뻐했다.

2대 단장인 이용호 형제(전업사 사장)는 수의 계약을 따기 위해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었는데, 레지오 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7-8시간 완행열차를 타고 왔다가 주회가 끝나면 그 밤에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열성에 다른 단원들은 도저히 결석할 수 없었다고.

지금은 '정의의 거울' Pr.으로 갈라져 나간 한 형제는 팔복동에서 일을 마치고 아내가 뒤에서 미는 손수레를 앞에서 끌고 오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아 넘어져 손수레 손잡이 쇠에 부딪쳐 이가 나갔는데도 병원으로 가지 않고 피가 흐르는 입을 틀어막고 주회에 참석하여 염려하는 단원들에게 발이 성한데 어떻게 주회에 빠질 수 있느냐며 회합이 끝나고 병원에 갔단다.

그 당시 단장이던 이연우(요한) 형제(중기사업)는 나체통문이 있는 무풍에까지 가서 주춧날 자가용이 고장났다. 교통이 좋지 않아 꼼짝없이 결석을 하게 생겼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모님께 기도하며 무주까지 나오는 트럭을 얻어 타고 무조건 나갔더니 전주행 버스가 금방 떠난 뒤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웬 자가용이

멈춰서 보니 우연히도 친구라 진안 정류소에 데려다 주어 버스를 타고 모래내에서 내려 택시 타고 성당으로 갔더니 회합 2분 전이었다. 단장계획서도 가지고 다녔으므로 무사히 주회를 마칠 수 있었다. 회합 후에야 성모님의 도우심이요,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한다.

기자는 지난날 바쁘다는 핑계로 주회에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성당 트랙에서 하찮은 이야기를 하며 묵주기도 끝날 때쯤 회합에 슬그머니 참석했던 때를 생각하니 부끄럽기가 그지없었다.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해체 위기 극복

67년 노송동성당으로 분리될 때, 속지 주위에 의해 20여 명이던 단원이 서기 1명 남겨 두고 단장까지 노송동성당으로 가게 되었다. 노송동성당에서 몇 주 회합했으나 원칙이 아니므로 혼자 주회를 하자 신부님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고, 그 당시 원장 수녀님과 사무장까지 동원되어 함께 주회를 하고 기도하여 단원들을 모아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단장이 바뀌면 다시 쇠잔해졌다가 또 카리스마가 강한 다른 단장에 의해 다시 부흥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다. 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모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야 한다는 정신으로 간부들이 결석한 단원들의 집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타계하였다. 그러다 보니 단원 수가 늘게 되면 한 팀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직 성모님의 이끄심 없이는 단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됨을 알고 모여 기도하며 극복하였단다.

순명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 보여

단원들은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며 서로 정이 많이 들었지만, 그 동안 10여 개의 브레시디움으로 분단시킬 때마다 야외

로 나가 단장과 서기가 양쪽에 서서 차례대로 이름을 불러 이쪽 저쪽으로 가르면, 누구 한 사람도 불평 없이 그대로 순명하였다.

요즘에는 분단시킬 때가 되어도 너무 친해 헤어질 수 없고, 또 단장도 누구를 갈라 내보내기가 어려워 친목회처럼 주회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데, ‘우리즐거움의 연유’ Pr. 단원들의 순명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활동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모두들 열심히 활동했지만 전업사 사



2000차 주회 모습

장인 이용호 2대 단장의 희생정신과 함석 공이었던 박인철(분도) 단장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다. 특히 박인철 단장은 추진력이 좋아 전 단원이 꺾꽂지 못하고 순명하였단다. 일요일 밤 9시에 주회를 시작하여 10시에 끝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걸어서 치명자산까지 올라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없이 뛰었다. 거룩한 일에는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 어찌나 권위가 센지 초상나면 단원들에게 입관부터 가르쳤는데 말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했단다.

또한 김재덕 신부님께서도 매 주회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서기의 기록, 출석, 활동, 제반을 철저히 지도해 주셔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단다. 출장 시에도 알로꼬시오(훈화)를 미리 준비하여 단장에게 주실 정도였다니, 순명과 열정으로 튼실하게 내린 뿌리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레지오 기본정신 무장 모범 단체

김환철(스테파노) 신부님 재직 당시 1997년 1월 26일 주일미사 중 역대 단장 및 단원들과 함께 2000차 주회 축하식을 거행한 '우리즐거움의 연유' Pr.은 요즘에도 변함없이 레지오 기본 정신으로 무장하

고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단장은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주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나와 지시할 내용을 단장수첩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활동을 지시한다. 단원들은 지시받은 활동을 위해 조(2인 6조)별로 병원으로 달려가 교우든 외인이든 쾌유하기를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지적 수준이 낮아 교본이 어려워도 반드시 교본과 성서의 정해준 쪽을 읽고 연구해서 발표한 후 토론하고 보충 설명까지 하다보니 처음엔 교본을 떠듬떠듬 읽던 단원들도 지금은 줄줄 읽게 되었고, 한 단원도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자랑이시다.

과거에는 봉사 뿐만 아니라 선교에 앞장서며 영세 후 관리까지 서로 빼앗으면서 책임지려 하던 레지오 단원들의 열정을 생각하면, 지금은 기본 정신조차 약해져 걱정이라는 어르신들의 염려를 뒤로 한 채, 21세기에 맞갖은 레지오의 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바람을 꿈꾼다면 기자의 지나친 욕심일까?

취재 | 허남(프란치스카)

사진 | 최경숙(글라라)

아픔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채 금 자
(데레사 · 황등본당)

15년 전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올 부짚던 시절이 있었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세속에 맞들이고 명예욕에다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나를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품에 안아주셨을까? 성서도 읽어본 적도 없고 옆에 서 계시는 신부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시력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글자도 볼 수가 없는데 구역장을 시키셨다.

어느 일요일, 미사 후 신자들이 다 빠져 나간 성당 문에 중풍에 걸려 다리가 몹시 아프신 할머니와 나만 서 있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다. 측은한 나

머지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만지다 무심코 감실을 바라보았다. 밝은 모습의 예수님께서 “데레사야, 너는 할 수가 있다.” 성당 안에서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본 것이다. 얼마나 놀라고 기뻐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도보로 이십여 분 걸리는 집까지 지팡이 없이 잘 걸어가셨단다.

아들 중매하자 냉담 풀어

세 분의 할머니들과 나와의 구역모임이 시작되었다. 냉담자, 외인들 순으로 방문하며 그리스도 왕국을 넓혀갔다. 14년 동안 냉담하였다는 K씨는 결혼적령기를 넘

은 아들을 중매해주면 성당에 나오겠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가 받아들여져 알맞은 짝을 찾아주어 결혼하였다. 물론 K씨는 약속대로 냉담을 접었고 구역모임에 참석하였다.

냉담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유나 핑계, 조건도 다양하였다. 밤바람이 서늘한 자정이 넘은 시간 우리 식구들은 막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테레사 엄마 문 열어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2년 전 시집온 필리핀 며느리였다. 얼굴은 두려움과 눈물로 얼룩졌고 가녀린 팔은 남편의 폭력으로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다. 그녀를 안정시킨 후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가며 나 역사가 나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남편이 ‘제 삼자가 무슨 참견이냐’고 언성을 높이면 제게 제압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문을 열자 식탁에 앉아 우리를 노려보는 무서운 눈초리와 술 냄새. 그러나 따뜻한 말에 그는 제 정신을 차렸는지 돌아올 때는 밤길이 무섭다며 집에까지 데려다 주

었다. 이 일로 인해 개신교에 다니던 그녀의 시어머니가 개종하여 착실한 구역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짜릿한 기쁨이 늘어가면서 구역을 두 번이나 나누어야 했다.

본당 활동 통해 하느님 배려 느껴

3년간의 주일학교 교사, 3년간의 성인 예비신자 교리교사, 3년간의 어린이 레지오 단장, 성인 프레스비디움 단장직을 지금까지 하며 주님을 알고부터의 신비로운 일들, 경이로운 힘들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있었음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남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부부는 서울 중림동성당에서 결혼을 했지만 익산에 내려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남편은 어머니와 개신교로, 나는 시력을 잃게 된 사건을 계기로 마음놓고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부부간의 갈등을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할 줄을 몰랐다. 미워하는 이들을 모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라면 고달팠던 세월은 훨씬 단축되



었을 것이다.

결혼 33년만에 남편 세례 감격

4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목주를 이탈리아에서 남편을 위해 구입하였다. 성모님과 함께 바칠 소중한 장미 꽃다발, 꼭 남편에게 주고 싶었고, 하루속히 그를 개종시켜달라고 기도드렸다. 2003년 7월 4일 결혼한 지 33년만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누구나 세례식 때 많은 감동을 받겠지만 나는 며칠 전부터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새하얀 파도기둥처럼 솟아오르는 환성을 질러대고 싶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찬미의 노래를 힘껏 부르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꾸리아, 울뜨레아 회합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말을 자주 한다. 그 말을 들을 적마다 난 울컥 환희의 눈물을 흘린다. 십년이 넘게 오전 8시 반에 성당에 가서 오후 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면 그이는 화를 벌컥 내며 “성당에 일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거야? 혼자 다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하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그러나 내가 욕심 부린 것이 아니라 순명하는 마음으로 신부님께서 “데레사씨, 이 일 좀 맡으세요. 또 저 일 좀 해주세요.” 하시면 “예”하고 했던 것이다. 아침

일찍 나가 성물점 봉사, 교리 가르치고, 주마다 회합하다보니 오후 1시 넘는 것은 예사였다. 남편은 그것을 다 지켜보게 되었다. 남편도 “당신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미안해.” 식탁에 앉아, 서로 눈을 맞추며 “내 대신 더 많은 일을 해. 이제는 당신을 이해하거든.” 이런 평범한 말도 나를 감동시킨다. 하느님은 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안겨주신다.

결손가정 어린이 엄마노릇

10년 전 어린이 레지오 단장을 할 때도 4명으로 시작하여 15명까지 늘려주셨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정환경을 파악, 결손가정의 어린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형제들이 많아 책상이 없는 아이에게 책상을, 어려운 아이에게 옷이나 필요한 것을 구해주며 예수님처럼 참된 벗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나야가 말만 전하여라.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배구경기 중에 ‘spike your passion’ 이 눈에 들어온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박 미 영
(헬레나 · 군산 지곡본당)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무척 다니고 싶었습니다만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니고야 말리라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스무 살 때 객지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지라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데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을 쉽게 찾지 못

하였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서 어렵게 직장 언니가 교회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던 그 날의 행복했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 좋게도 성당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저처럼 다니고 싶는데도 인도자가 없어서 못 다니는 이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저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선교하여 9남매의 친정식구 36명이 세례를 받았습다. 또 시댁은 저와 동서 밖에 믿지 않았는

데 지금은 네 집 가운데 세 집 가족이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시부모님도 천주교로 개종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많이 보이고 계시므로 머지않아 곧 입교하시리라 믿습니다.

천정식구 36명 세례로 이끌어

저는 세례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두통, 신경통, 관절염, 간염, 척추를 금속으로 연결시키는 대수술, 심장병을 앓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언제 죽을 맞을 줄 모르는 만신창이의 몸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온갖 병마에 시달리느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며 갈구했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병원진료와 입원으로 주일미사에 빠지기가 일쑤였으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냉담이 거듭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장생활까지 해야 하니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이러던 제가 2003년 여름방학 때 심장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분당 여동생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지금의 건강한 저로 변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여 새벽미사, 성서공

부, 반모임, 기도회 등 설 새 없이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며 따라다니면서도 저의 몸이 적응을 하며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 아프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단련된 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집에 내려와서도 늦추지 않고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잘못 살아온 저의 지난날들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항상 원망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세상 걱정으로 오는 스트레스 등 가슴 속에 가득 찼던 나쁜 찌꺼기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지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더니 저의 생활에 생기와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지내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눈물의 회개로 병든 육신 치유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의 “힘이 빠진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야훼를 믿고 바

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제가 변한 것입니다. 덤으로 자식 문제, 남편 승진 문제, 경제 문제 등이 술술 풀리며 좋은 일만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안주하며 산다는 것이 이기적이며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째 사업인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서 읽기로 흔들리는 믿음 유지

저는 선교를 위해 저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서를 꾸준히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십일조를 지키기 위해 교무금과 선교단체와 복지시설에 기부금을 보내는 등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봉헌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 시간을 늘리며 봉헌하는 생활을 더욱 성실히 하고 싶어서 스스로 레지오에 입단하였습니다.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성모님께 보고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더욱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모님께 냉담 중인 신자들이나 비신자를 위해 기도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의 신앙 체험과 치유에 대한 감사를 증거하며 천주교에 입교하도록 권했습니다. 우직한 황소처럼 저는 무조건 들이밀며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서면 모두



연차 총 친목회를 마치고

들 싫다 앓고 저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항상 종합병원 같던 제가 건강하고 기쁘게 사니까 제 말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접근 선교 권유

그러나 선교를 하다보니 말로만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음성강좌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묵주, 스카폴라, 상본, 책 등을 구입하여 성물상자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선교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저희 집의 생활비 중에서 선교활동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1년이면 병원비로 천만원 가까이 들던 것에 비하면 이런 비용은 별것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채워주시니 결국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해 추석날 저의 친정어머니가 서울에서 두 달 가량 암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본당 신자가 아니라고 장례미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시신을 모시고 내려왔습니다만 추석날인지라 그곳 성당에서 신자들이 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끼리 연도를

바쳐야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신자를 가진 덕분에 저희끼리만 연도를 바쳐도 빈소를 꽉 채웠으며 교대로 비우는 시간이 없이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신자인 덕분에 분란이 없이 일치된 방법으로 어머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들은 저희가 일치되어 연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천주교가 좋아 보인다고 호감을 갖고 천주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은 같은 종교를 갖고 있기에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교가 저절로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은총에 감사

신자생활 30년 동안 63명을 선교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20명을 하였으니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수를 선교한 셈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는 온전히 제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저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겠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봉사의 마음으로 선교의 씨앗 뿌려



길 성 수
(베네딕도 · 아중본당)

저는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편안한 것 중에서도 옛날 검정 고무신을 좋아합니다. 제 차 속에는 항상 검정 고무신이 준비되어 신발 신을 장소만 되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섭니다. 검정 고무신은 저를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값 싸지요, 안 닳아 신어도 매일 검게 반짝거리지요, 발도 편하지요,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지요, 특히 여름 물놀이엔 일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잘 신고 다닙니다. 아주 편안한 신발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계획

대로 양식에 짜여진 선교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하는 선교는 상대방에게 부담주지 않게 되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흔히 하는 선교, 즉 이론적인 선교, 천주교가 어찌고, 삼위일체가, 마리아가 어떤 분이고, 이러한 선교를 하다보니, 개신교 신자들보다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끈기도 없고, 성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요, 욕심만 가지고 계속 찾아만 가다보니 일 년에 한 사람 선교는 고사하고 주위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아

따 저 자식 또 성당가자고 귀찮게 하네.” 하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점차 선교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성당 생활에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야! 선교는 하는 사람만 하는구나. 나는 한 사람도 선교하기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론보다 몸으로 하는 선교 효과적

그러던 중 레지오의 활동배당으로 노력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미사 후에 인후동 어느 꽃집에 들러 잡일이며 노력봉사로 일년 반쯤 도와주면서 그집 식구, 종업원 등 8명을 모두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론으로 어찌고 하는 선교보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로 하는 선교가 힘이 컸습니다. 그 해에 17명을 영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분들께 천주교만 알려줬지 신앙심은 심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곧 그분들은 냉담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선교를 계속하면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말로 하거나 봉사로 하는 선교가 필요하지만 결코 그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이 부족하기에 사후관리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써 먹던 그 방법도 한계가 있어 봉사하는 정신에다가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선교 대상을 정한 후 길거리든 식당에 가서든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열심히 술도 마셔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사주팔자 관상도 봐주며 형처럼 동생처럼 오빠처럼 지내며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잡으려 역학 서적이며, 수지침, 풍수, 관상, 손금보는 법까지 다 공부하며 주위 사람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벼라별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선교 대상자에게 다른 이야기는 다해도 성당이야기는 상대방이 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계 개선만 하였습니다. 선교 대상자의 집은 거의 매일 들러 인사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5년 6년째 종교적인 말은 안하고 인사만 하며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게 하는데 열중

이렇게 하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성당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은 다 좋은데 교리 받기가 힘들다더라. 교회는 잠을 자다가도



레지오 마리아에 50주년 선교대상 시상식 때

찬송가 소리가 크게 나면 끝나는데 성당은 잠들만하면 일어서라 다시 앉아라 하니 피곤해도 잠도 못자니 다니기 힘들다더라. 어찌다더라. 나는 직업이 좋지 않은데 성당에 간다면 욕하겠지, 나는 식당 종업원인데 성당에 다니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는 등 계속 물어오곤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열고나니 어려운 방법도 다 통했습니다. 사실 이러저러 하니 교리반에 갈 수 있으면 가보자, 내가 모든 것 책임진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책임져 줄 테니 교리반에 가보자 하며 선교에 관한 책자도 쥐가며 설명하면 100%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일 년 만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4년 만에 받은 사람

도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은 나중에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위 친구며 성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1월

에도 8명 세례시켰고, 이번에도 7명을 입교시켰으니, 올해도 20명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들여

이렇게 선교를 다시 하다보니 이제는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사귀는 재미에 제 자신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저의 집 주위에 김밥집, 병원, 약국, 제과점, 식당, 사진관, 카센터, 길거리 노점상, 맥주집, 막걸리집, 과일집, 거의 다 성당 다니는 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인사하느라 성당에도 빨리 가야 됩니다. 인사를 하도 많이 하고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집사람과 똑같

이 성당에 가도 집사람이 성당에 5분 먼저 가게 됩니다. 저는 계속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사람이 성당만 같이 가면 스트레스 받는대요. 같이 미사도 못보고 혼자 다녀야 하니까요.

상대방 눈높이에 맞게 선교해야

선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천당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기보다 힘들듯이 절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다고 그 정도 높이의 선교를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의 노점상이 높은 분을 선교하려면 어렵지만 높은 분이 길거리의 노점상을 선교하기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하시는 분은 이제 체면이고 뭐고 더 이상 고개 숙일 것이 없지만 높이신 분은 자신을 더 낮추고 고개를 숙일 수 있기에 선교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 위해 100번 이상 만나

어느 총각이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00일 후

에 편지를 배달해 준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짝사랑하는 마음보다 매일 찾아가는 우체부의 마음이 더 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거의 한 사람당 100번 이상씩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교시킨 사람 세례받을 때까지 같이 교리반에 나갑니다. 100번 이상 만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놓으니 편합니다. 물론 200번 300번 만난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앙심보다 먼저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급히 굴지 말고 꾸준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주셨는데 저희는 조그만 일이지만 한 분이라도 선교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교한답시고 이렇게 돌아만 다니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열심히 참고 기다려주는 집사람에게 항상 고마움을 전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고민

도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전원주택으로 옮겨오니 다른 점들이 있다. 가장 다른 점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면 끝났지만, 여기서는 웬만한 쓰레기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요즘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문제는 바로 쓰레기 처리이다.

아파트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때도 쓰레기가 넘쳐나서 매립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안이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직접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쓰레기 처리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염분이 많은 음식물과 국물은 땅은 물론이고 물까지 오염시키니 죄스러운 마음이다.

우리 나라의 생활쓰레기 8만 4천 톤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돈으로 치면 연간 약 8조원이 된다. 세계 인구 64억 명 가운데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 3억 명을 포함해서 8억 명이라는데…….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남지 않게 해서, 처리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특히 우리 전복은 음식의 고장 답게 반찬 가짓수도 많고, 양도 넉넉하게 담아야 먹을 맛이 나는 곳이라 음식쓰레기가 타시도보다 월등하게 많다고 한다.

음식이 남지 않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 더 심각한 음식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이덕자(안젤라)



양로원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성모양로원 할머니들의 이를 고쳐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데, 삶의 향기에서 한 번 취재를 해보시죠.”

편집회의를 할 때에는 추천 들어오는 분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분을 취재할까 고심한다. 마땅한 분이 정해지면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먼저 전화를 한 뒤 기자가 시간 약속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기자가 먼저 전화를 하면 완강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흥보국 파치스 수녀님이 전화통화를 하여 어렵게 허락을





송창권 원장이 병원을 찾은 한 할머니와 상담을 하고 있다.

받았다.

기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톨릭사진가회의 유백영 가브리엘 형제와 함께 취재 길에 나섰다. 군산 송치과 원장님.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성모양로원에 전화를 하여 원장 수녀님과 통화를 하였다.

할머니들 치료 송치과만 원해

송치과 원장님에 대해서 물었다.

“명절 때는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할머니들 손을 일일이 잡아줍니다. 작년까지는 꼭 양로원에 와서 진료를 해주었는데, 올해는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할머니들을 모시고 갑니다. 치료비도 개인이 내야

하는 금액을 원장님이 다 냅니다. 무료인 셈이죠. 이상하게 할머니들은 그 치과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유심히 살폈더니, 꼭 어머니한테 하듯이 자상하게 대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마음은 더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할머니들이 그곳에만 가려고 할까?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원문을 열고 들어섰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남자분, 웬 텔런트가 와있나? 바로 송치과의 송창권 원장님이였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함께 식사를 했다. 본명은 아쁠로니오. 치과의 성인 이란다. 치과대학생 시절 영세를 받을 때 수녀님이 지어주셨는데, 늘 이 성인을 생각하며 진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례명 치과 성인명으로

“제가 한 일이 없어서 취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수녀님께 말씀드렸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채찍이라 여기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양로원엔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진료를 하시게 되었나요?”

“저희 둔울동성당 성가정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양로원 건축비를 모을 때 기금을 좀 냈고요. 원장 수녀님께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일이 끝나면 조용히 가서 봐드렸어요.”

그는 1984년 치과대학생 때 영세를 받았단다. 지금의 부인이 학생 때 함께 받았는데, 부인과는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단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싫증내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성격이라 오랫동안 만나도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던단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도 한 몫을 했단다. 그런 성격은 개업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병원의 위치를 바꾸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

10년 전부터 남모르게 무료진료

“성모양로원과 관계를 가진 것이 몇 년



환자를 치료중인 송원장

정도 되셨나요?”

“10년 전에 성가정회에 가입했으니까 했수로 10년 정도 되었지요. 직접 나가게 된 것은 4년 전 양로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겨온 뒤부터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제가 공적인 일을 맡은 게 있어서 가지 못하고, 후배들이 갑니다.”

“둔울동성당 성가정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사목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임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 모임입니다. 성당 내에서만 16가정이 됩니다. 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봉사도 가정이 바로 서야 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봉사를 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성가정은 이상과 현실의 사이를 좁혀줍니다.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성당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1년 예산을 세워 사목회에 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봉사도 가정이 바로 서야 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봉사를 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성가정은 이상과 현실의 사이를 좁혀줍니다. 온가족이 함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 하는 가정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사회봉사보다 우선을 두는 것이 가정 성화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이지요.”

봉사보다 가정성화가 먼저

그가 가정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큰형님의 영향이 크다. 그는 4남 1녀 중의 막내인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큰형님 부부가 신심이 매우 깊어 본보기가

되고 있단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도 형님의 노력에 감동받아 영세를 받으셨고, 전 가족이 신자가 되었단다.

“할머니들 치료비도 다 내주신다면서요?”

“그거야 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느님께 받은 큰 은총인데……, 큰돈이 아닙니다. 할머니들 모시고 오시는 수녀님이 고생하시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방문하는 환자의 많은 수가 노인들이란다.

항상 미소로 환자 맞아

“저는 막내로 자라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깊이 알죠. 그래서 노인들의 반복하는 소리를 잘 들어주지요.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노인들을 보면 저의 부모님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식임

장이 되려고 합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내 가족이 왔다는 생각을 하라고 이름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치료를 해드렸던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니다.”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남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거창한 것 보다는 작은 데서 이루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희망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특별한 것이 없단다. 신앙인이니까 신앙인답게 생활하는 것이란다. 더 구체적인 것을 묻자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감사하게 여기며 베풀고 싶단다. 또한 가정의 성화를 이루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과도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단다. 시종일관 쉼스러위하며 답변하던 그는 이 인터뷰를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인터뷰를 마치고 성모양로원에 들러 그가 진료하던 사진을 한 장 받아오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세상, 텅달아 이 세상도 오색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사진촬영을 기꺼이 해준 가브리엘 형제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박을 내다보며 기지는 모든 이에게 감사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성가정을 중시하며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송치과 원장님의 넉넉한 미소가 더 많은 할머니들에게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기를.

취재 | 이덕자(안젤라)

사진 | 유백영(가브리엘)



성체성사의 영성(下)



윤 양 호 신부
(교구청 사무처)

3. 성체성사의 영성과 요소들

1) 친교의 원천(源泉), 현현(顯顯)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요한 15,4). 예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들 ‘안’에 머무시는 방법을 찾으셨다.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심오한 친교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영성체를 모심으로써, 천상에서 맛볼 완전한 충족을 기대하며 여기 지상에서 하느님으로 배부를 수

있다.(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19항)

‘성체성사는 교회 일치의 원천이자 그 최고의 현현입니다. 성체성사는 친교의 공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웁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4항; 교회법전: Code of Canon Law, 제908조; 동방교회 교회법, 제 702조) 감사기도에서 교황과 교구장 주교를 언급하듯이, 다양한 역할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계적 친교입니다. 또한 그것은 상호개방과 애정, 이해와 용서를 촉진하

는 ‘친교의 영성으로 형제적 친교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1항)

2) 선교의 원리(原理), 계획(計劃)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났다”(루가 24,33).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는 곧 그 곳을 떠났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게 된다. 성체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복음화의 절박성을 일깨워 준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그 예식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 2004년 6월 10일, 12일, 6면 참조)

3) 영성생활의 정점(頂點), 원천(源泉)

성체성사는 신자들의 삶을 살찌우고 인도하여 그들의 삶이 참된 ‘영적 예배’(로마 12,1 참조)가 되게 한다. 성찬례는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성체성사의 해 제안과 권고: 2004년 10월 15일, 4항 참조)

우리는 성찬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겠다.

성찬례는 다른 여러 영적수단을 능가하

는 영성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다. 영성체를 정기적으로 받아 모심으로써 각각의 성소와 삶의 방식들(수품 교역자들, 부부와 부모, 봉헌 생활자들에 상응하는 은총을 지속시킬 수 있고, 삶의 다양한 상황(기쁨과 슬픔, 문제점과 계획, 질병과 시련 등)에 빛을 비출 수 있다. 사랑, 화합, 형제애는 성찬의 열매이고,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친교를 드러낸다. 또한 은총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은 성찬례를 충만히 거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이를 증거하도록 촉구 받고, 지상 도시의 건설을 서두르게 된다.(성체성사의 해 제안과 권고, 4항)

4) 성찬 영성의 요소들

(1) 말씀에 귀 기울이기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경청하게 한다. 말씀에 대한 깊은 경청이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법을 익혀야 한다.

(2) 회개

주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죄를 반성한다. 성찬례는 참회하는 사람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

를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게 함으
로써 그의 마음을 깨
끗이 씻어주고 그를
회개로 이끈다.

(3) 기념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
합니다.’ (감사기도 제
3양식) 성찬례는 구

체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
념제이다. 성찬례는 인류가 그리스도 안
에서 재창조 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신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의 기념
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모든 은총을 감사의 마음으로 깨닫도
록 재촉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영성
의 길은 풍요로워진다.

(4) 희생제사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 저희는 이
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감사하
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 있는 이 제물



미사는 예수 최후 만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55년 달리 작)

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감사기도 제
3양식)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희
생의 성사이다. 성찬례에 참여하고, 우리
가 들은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
리의 삶은 기뻐하시는 희생제사가 된다.
성찬례의 희생적 차원은 삶에 대한 투신이
며,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희생, 자기 증여, 무상성, 봉헌의
영성이 흘러나온다. 성찬의 희생제사 영
성은 우리의 하루, 곧 우리의 일과 관계
들, 갖가지 일상사에 스며들어야 한다.

(5) 감사제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
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
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의 ‘감사’에서 유래하였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328항)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받은 은총들(생명, 건강, 가족, 소명, 세례 등)에 참으로 감사하는 영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6) 그리스도의 현존

성체성사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전체로, 진실된 본체로 현존하신다. 형상 속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이라는 말은 배타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만큼 탁월한 것이기 때문이다.(신앙의 신비, 39항;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6항) 성체성사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활동이다.

(7) 친교와 사랑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3양식) ‘성찬례는 사적 행위가 아닌, 혼인의 풀 수 없는 유대로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이다.’(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제3장 참조) 성찬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교회 친교의 끊임없는 원천이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3양식)

(8) 침묵

‘고요히 주님 안에 있거라. 믿고 있거

라.’(시편 37,7) 성찬례 거행에서 특히 중요한 두 부분은 하느님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미사 독서 목록, 28항;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128.130.136항 참조)과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영성체에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이다.(미사전례서 총지침, 164항 참조) 어떤 의미에서 이 침묵의 시간은 성체를 공경하고 관상하며 성체 앞에서 기도드리 는 성체조배를 통하여 전례거행 밖에까지 이어진다.

(9) 공경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묵시 4,10) 사제와 신자들이 성체 앞에 무릎 꿇을 때(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43항), 그들은 제대의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387항 참조) 성찬례 거행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하느님을 흠송하려면, 온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이러한 영적태도가 두루 배어 있어야 한다.(성체 성사의 해 제안과 권고, 29항)

(10) 기쁨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주님을 흠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성찬 감사송, 2)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신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인 기쁨을 영신적으로 함께 나누는 데 있다.’(교황 바오로 6세, 그리스도인의 기쁨:Gaudete in Domino, 제2장) ‘이렇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성찬 신비의 거행’, 특히 주님의 날의 성찬 거행과 ‘분리될 수 없다.’(같은 곳, 제4장 참조) 주일 성찬례의 축제적 성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에 전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한다.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로마 14,17; 갈라 5,22 참조; 주님의 날, 56항 참조)

(11) 선교

‘모든 언어, 민족, 국가의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열매이며, 선교의 임무를 항구히 받았다.’(마태 28,16-20 참조) ‘교회는 십자가의 영원한 희생제사에서, 그리고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결합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영적인 힘을 얻는다.

성찬례는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성찬례는 인류가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과 친교를 이루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7-28항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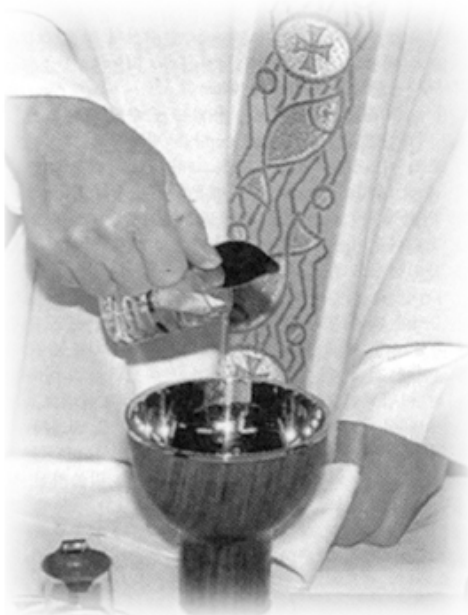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겠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분과 이루는 친교의 샘인 성체성사에서 양식을 얻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께 대하여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모든 형제 자매와 또 실제로 모든 사람과 결합시켜 주는 성찬의 유대를 다지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성체는 마땅히 선교의 빵이다. 이러한 의미의 표상은 엘리야가 그의 여정에서 맞닥뜨린 난관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받은 음식이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렐에 이르렀다”(1열왕 19,8).

4. 결론

이 거룩한 성체의 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과 만나 그분과 친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 거룩한 해가 이루는 쇄신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성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성찬례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며 성



성찬 전례 때 성체에 미사주를 따르는 모습

체를 공경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데레사 성녀는 말했다. “주님을 찾으려고 다른 먼 데로 갈 필요가 없이, 빵의 허울이 우리 육체의 열로 없어지기까지, 그 동안은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이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완덕의 길, 제34장 8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거룩한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반포 40주년 기념교서 (<성령과 신부: Spiritus et Sponsa>, 2003년 12월 4일, 13항 참

조)에서 미사거행에서나 성체조배에서 침묵의 중요성과 깊은 존경으로 성체를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끝으로 교황 바오로 2세의 성체와 성체 흡수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성체성사의 해 동안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조배는 개별 본당들과 수도단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됩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부주의하고 태만한 행동들을 고쳐나가고, 우리 구세주께서 세계 도처에서 권디셔야 하는 상처들까지도 치유합니다. 또한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수많은 신비주의 체험과 하느님 말씀에 영감을 받은 기도문들에 의지하여, 성체조배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관상에 깊이를 더해 나갑시다. 제가 교황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권고한 대로, 묵주기도를 성서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틀 안에서 이해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동반자이며 안내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성체를 관상하도록 이끄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구원의 성사, 137항 참조)



작은 천사들의 십터



김용숙(글라리) 원장 수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자리잡고 있는 진달네집은 소박하고 정겨운 시골 집처

럼 아늑한 곳이다. 넓게 펼쳐진 고구마 밭이며, 길가에 툇툇 떨어져 나뉘는 자두 알, 지난 장맛비에 이미 젖버린 봉숭아꽃을 보고 있으려니 한가로운 농촌 풍경의 그림속에 앉아 있는 듯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2).’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성심의 자비와 사랑의 불꽃을 온 세상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겨주는 작은 불씨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소화 수녀회’ 수녀님들은 사회복지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잃었던 아들

을 포옹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예수의 소화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 진달네집은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천사들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이다. ‘소화(小花)’는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게 낮은 곳에 피어 있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향기와 빛’으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해주는 ‘작은꽃’을 뜻한다.

소화 진달네집은 1965년 김준호(레오) 선생이 광주 소화 자매원의 전신인 송동원을 설립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결핵환자들의 구호에 힘쓰는 것을 보고, 유명모 선생이 전주시 완산구 모악산 기슭에 진달네 집터와 임야 4만여 평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1968년 4월 진달네집을 설립하였고, 1990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당시 우전성당 박창신(야고보) 신부님과 은인들의 도움으로 남자숙소를 건립하였다.

2004년 5월에는 예수의 소화 수녀회 소속 김용숙(글라라) 수녀가 취임하였고, 2004년 7월 용복동에 소화 진달네집을 착공하여 지난 해 11월에는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과 신부님들, 그리고 여러 은인들과 봉사자들을 모시고 축복식을 가졌다.



수녀들이거거하는 집

20분의 정신박약 장애인 살아

두 분의 수녀님을 모시고, 현재 진달네 집에는 36세부터 92세까지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다섯 분의 형제님과 열다섯 분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극빈자로서 정신박약과 1급 장애인이다.

보이지 않는 손길과 후원금은 이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진달네 농장의 마늘이며, 양파, 감자, 상추, 쑥갓, 양상추, 비트, 아욱, 오이, 시금치, 완두콩 등을 알뜰하게 잘 가꾸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들의 식탁은 나름대로 풍성하였다.

그러나 지금 진달네집은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낡아서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지하로는 빗물이 스며들어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핀다. 그리고 램프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를 가진 식구들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했다.



사진 왼쪽 시계방향으로 여자숙소, 채소밭, 남자숙소, 수확한 농산물.

리모델링비 부족, 도움의 손길 절실

그러던 중, 올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복권기금)’을 신청하여 중·개축비로 9천만원을 책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비는 본 공사비 외 설계비와 부대비를 합하여 1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본원(수녀회)에서 7천만원을 주기로 하여서 현재는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작년에 할머니들의 집을 새로 지었고 또 올해에는 형제님들의 집을 리모델링하게 되었기에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이다.

아무쪼록 진달네집 식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수녀님의 소망이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수녀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던 옥수수알 같은 야무진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35-40).

취재 | 김혜선(아네스)

사진 | 이규현(루가)

후원계좌

지로번호 : 7663437

농협 : 505-12-216297 유미자

전북은행 : 524-22-0373358



건강하게 사세요

가을철 건강관리 이렇게



송승현(토마)
(스스로 한의원장)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는 가을에 관심 가져야 할 우리 몸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건조 피부질환 생기기 쉬워

먼저 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은 기후가 건조하며 청명(淸明)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몸이 가장 부담 받는 곳이 피부입니다. 피부란 적당히 습윤(濕潤)해야 함에도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 기후가 건조하니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다

른 계절보다 가을의 기후가 건조하므로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 많고 자주 씻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므로 피부질환이 더욱 심해집니다.

‘새 아파트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아파트는 사람에게 여러 모로 편리함을 주고는 있지만 우리 몸에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원래 몸이 열(熱)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건조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더욱 관리를 잘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청결히 생활하는 습관들이 많아 아침저녁으로 샤워하며 비누나 세정제로 너무 피부를 깨끗이 씻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손상 시킵니다. 따라서 샤워를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보습제 등을 발라주는 것이 가을철 피부 관리에 좋습니다.

적절한운동으로 관절질환 · 비만예방

그리고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물들도 부지런히 먹고 지방을 축적하는 것처럼 사람도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덥거나 춥지 않으므로 운동하기도 좋아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절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가을철에는 건

조하고 습기가 적어서 관절에 부담이 적으므로 적절히 운동을 해야만 겨울철 악화될 수 있는 관절질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비만과 관절질환에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이며 운동은 항상 꾸준히 너무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하던 운동을 시작하면서 과욕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적절한 운동만이 효과적이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하다보면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여 관절 등에 손상을 받아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운동 전과 운동 후 몸풀기 체조를 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항상 운동 전과 운동 후 몸풀기 체조는 반드시 하여야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난치성 질환 아들 고통 통해 부부 화합 이뤄



주 영 승

(헨리코 · 호성동분당)

저희 가정이 성가정으로 지명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몹시 당황되었고, 최소한 저희 가정은 성가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성가정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저희와 같은 시행착오를 많은 형제 자매들은 겪지 말라는 것을 저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하다고는 하지만 저희 가정 역시 불화가 많았고, 우리 부부

모두 아마도 오래 지속되었으면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생활, 저는 사회에서 보다 높고 보다 좋은 자리, 더구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관례로 아주 이상적인 꿈만을 좇아서 현실생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사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커다란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정에서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저의 아내의 생각과 맞지 않아 이상과 현실이 부딪치는 불화를 항상 담고 있

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간 불협화음의 연속

한 예를 들면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부대모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M.E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M.E역사상 최초로 교육장을 이탈할 부부의 모습을 보여서 봉사자들이 마음 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입니다. 도무지 서로 화해가 되지 않고 M.E의 텐앤텐 프로그램 즉 부부가 하루에 10분씩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프로그램은 저희 부부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작게는 한 시간, 보통 두세 시간 동안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의 개진, 그리고 요행히 일치를 이루더라도 2~3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이러하니 저의 애들은 오죽 했습니까.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좋은 성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애들이 성당가는 것도 아까워 했으니까요.

이러한 와중에 저희 가정에 작은 예수님



성가정상 시상식 때

이 오셨습니다. 아니 일찍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니까 정확히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저의 아들 현규(보니파시오)가 난치성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2년 정도 살 것이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었던 아들이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 치료비 걱정 등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들 불치병 통해 가족의 삶 변화

이런 와중에서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저희 가정의 여러 일은 진짜 웃기는 일이고 너무나 사소하고 어찌보면 창피할 정도로 의미없는 일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로 그러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확실하게 변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퇴근길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게 가 집 문을 여는 순간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당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기 시작했구요. 이후 아내와 아들은 본당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 교사로, 딸은 교구청의 청년성서 봉사자로, 저는 본당의 사목회 일을 담당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온가족이 모두 청년성서를 접할 수 있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성서말씀이 골수에 새겨지는 은총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가정의 중요성 뒤늦게 절감

그래서 저희 가정은 다툼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일이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진짜 성가정일텐데 그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저희 부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현규(보니파시오)가 저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한 방 두들겨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니 참 한심하다구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랬었습니다.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이 지냈구요, 더구나 성가정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부부는 이 자리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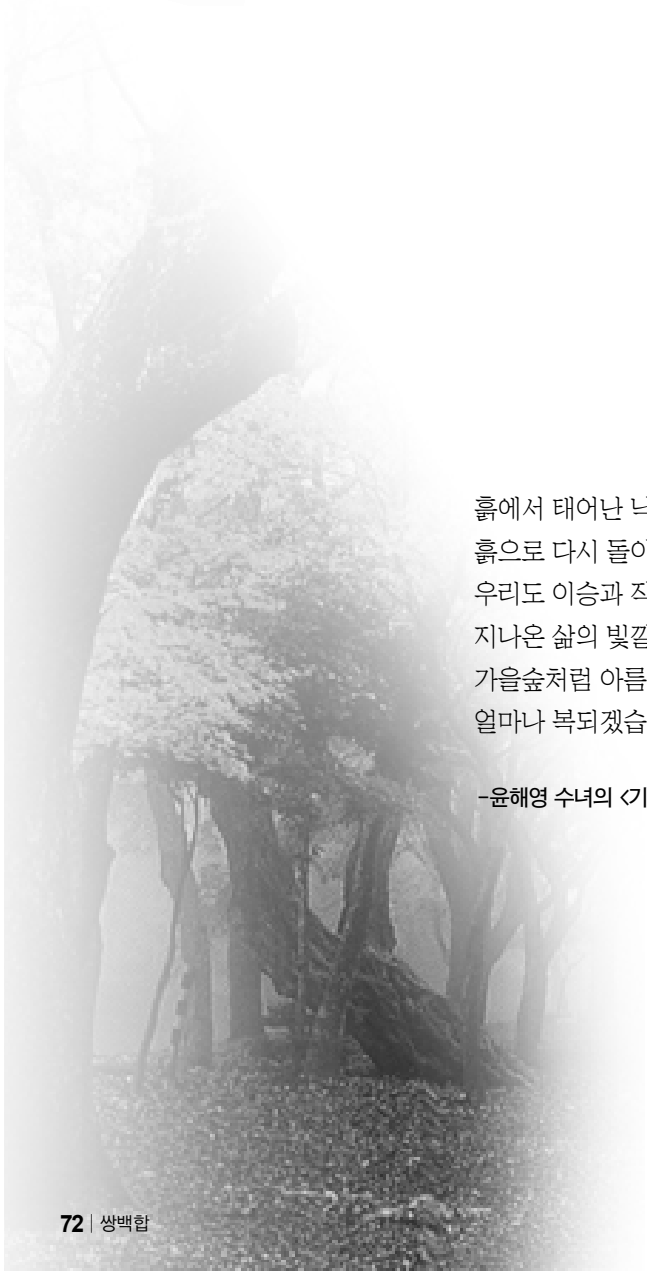
그것은 우리 같은 어리석은 부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고, 특히 현재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 현규(보니파시오)에게 말도 안되는 상이지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못난 가정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성가정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정에서 무엇이 진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못나고 어리석었던 모습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교훈이 되어, 우리 모두 참된 성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04년 성가정상을 수상한 후 '숲정리'에 실린 글입니다.

영혼의
심터



흙에서 태어난 낙엽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
우리도 이승과 작별을 해야 할 때
지나온 삶의 빛깔이
가을숲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윤해영 수녀의 <기도 바구니> 중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지난 4월 20일 올해의 장애극복상이라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임희석(라파엘)형제를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서니, 토요일 오후인데도 자원봉사 신청차 오는 중·고등학생들, 출장가고 들어오는 봉사자들, 갖가지 일들로 찾아오는 사람들, 회장님을 찾는 끊임없는 전화 등으로 엄청나게 바쁘다. 4,000여만 원을 들여 새로 지었다는 사무실도 화장실을 포함하여 전체가 밝고, 깨끗하고, 산뜻하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분위기다.

임희석 형제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가난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뇌변병(뇌성마비)이란 1급 중증 장애로 인하

여 학업에 뜻이 있어도 너무나도 힘든 삶인지라 25세의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른 뒤 특수학교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를 다니던 중 편입하여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를 올해에 졸업하였다.

자신이 장애를 입었기에 다른 장애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수렴하여 시작한 '장애인 손수레 자원봉사회'란 무료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한 지 올해로 아홉 해를 맞이하여 학업과 자원봉사단체의 회장직을 겸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이분의 성격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는 소유자이다.

앞으로 이분의 희망이나 포부가 있다면 좀더 많은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와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

▲좀 쉬셔야 할 텐데 토요일 오후에 뵙고 해 죄송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곳 일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으니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 I. 자립생활 서비스 사업에 유료 활동 보조인 파견 서비스 외 8개 사업



II. 저소득 독거 가정세대 지원사업에 무료 한방 진료 외 3개 사업

III.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 음악동아리 '수레 소리 SING' 지원 외 2개 사업

IV. 손수레 자체 사업에 '깊은샘' 사립문고 운영 외 8개 사업

V. 교육사업에 자원봉사자 교육 외 2개 사업

무려 28개 사업을 하는데 그 정신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사는 개방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향하는 것이지요. 우리 법인의 명칭이 '사단법인 전북 손수레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인데 자립생

활이란 현실적으로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 격리되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동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립생활에는 ‘스스로 혼자 살아간다’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존엄함을 지키며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사업을 하면서 별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다. 그런데 맨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1년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다.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아랫동네가 제 고향인데 이곳에서 스무 살까지 살았습다. 완전히 동물 같은 생활이었지요. 부모님께서 일하러 나가시면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밥 챙겨놓고 피로 묶어놓고 나가습다. 그러면 때 되면 있는 밥 먹고 대,소변은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생활을 20여 년 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처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와 안동에 있는 시설에서 재활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생각하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다.

▲학력을 보니 25세에 초등학교를 마친 셈인 중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41세에 대학을 졸업했으니 그 어려운 몸으로 17년 이상 공부하셨는데 공부가 그렇게 필요했고 또 하고 싶었습니까?

-안동에서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습다. 내가 인간답게 살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다. 그래서 특수학교 명단을 갖다놓고 찾아보는데 전주에는 없고 또 외지 학교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 입학자격이 없었습다.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인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의 도움이 컸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한일장신대로 편입하여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주로 가톨릭 맹인도서관에서



녹음으로 된 책을 들으면서 공부했지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누구에게든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후원자나 은인들에게서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자 굳은 각오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올해 상담사, 사회복지사, 워드2급 등의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원래 태종교우였습니까?

-1985년에 고산 성당에서 박병준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그 후 견진도 받았습시다. 앞서 말씀드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님의 도움을 받고 가톨릭 맹인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천주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죠. 그 후 신·구약이 녹음된 녹음 성서를 두 번 들었는데 세례를 받을 생각이 들어 신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에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지요. 어땠든 회장님께서도 한 데나리온은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현존 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적은?

-항상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팔복동의 어두운 골방 속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살 때도 항상 고마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을 물질이든지, 정신적인 힘이든지, 사람이든지 꼭 주셨습니다. 물론 많이는 안 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

만 주시지요. 돈에 대한 한 예를 들면 사무실을 새로 짓는데 4,000만원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제가 대통령상을 타서 상금 1,000만원, 바자회 수익금 1,000만원을 합하여 2,000만원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크게 발전하고 많이 나아진다고 해도 처음의 마음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또는 기뻐던 일은?

-항상 기쁘고 보람 있었다면 믿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같은 장애우들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할 때, 밖에 나갔던 회원들이 “잘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할 때 참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통령상 받은 것 물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건 외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정말 기쁜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지요.

▲가장 보고 싶거나 생각나는 사람은?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펜팔이라는 것을 했었지요. 4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은 경북 상주에 사시던 전명득씨라는 같은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략 45,6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4년 동안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지요. 앞서 말한 안동의 재활기관으로 간 것도 그분의 소개와 권유

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장애인,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던 한 장애인을 지금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 정말 잊지 못할 꼭 한 번 보고 싶은 고마운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소도 잃어버리고, 그분이 계시던 시설로 가 보았는데 재단이 바뀌면서 모든 서류가 파괴되었다며 전혀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꼭 한 번 뵈었으면 싶습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이 있다면?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교우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서슴없이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불우한 이웃을 통해 하느님을 뵈었으면 싶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열성적으로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말하는 임희석(라파엘)형제와 얘기를 나누면서 장애인에 대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도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하시던 어떤 신부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 자신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혹시 마음이나 정신에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취재 | 심연무(아우구스티노)

사진 | 고민자(모니카)

수 상 경 력

- 1996~현재
- 1996년 11월 96년 문학의 해 조직위원장 상 수상 (사립문고 협의회)
- 1996년 12월 ‘신한국인’으로 선정 (청와대 초청)
- 1997년 9월 깊은샘도서관 전북협회장 상 수상 (사립문고 협의회)
- 1998년 11월 감사패(평화사회복지관장)
- 1999년 12월 ‘99자원봉사대축제’ 상 수상 (전라북도지사 상)
- 1999년 12월 제6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중앙일보사)
- 1999년 12월 표창장 (전주시장)
- 2001년 3월 표창장(봉사상-전주시장)
- 2004년 6월 도지사 상 수상
- 2005년 4월 대통령 상 수상

공 적 내 용

-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대여 사업시작 (93.2)
- 장애인 상담실 및 장애인 모임 ‘샘물회’ 운영 (95.3)
-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독서모임 ‘옹달샘’ 운영 (96.3)
- 재가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사업 (97.4)
-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가입 (99.3)
- 밝은마음회 결성 (99.12)
-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1.4)



나는 행복한 산지기 신부



“나는 자연과 매일 씨름하고 살아요. 또 한 그것이야말로 나만의 행복이지. 여기서 벌레도, 산짐승도, 다 내 친구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산지기 신부요.”

벌과 개미, 심지어는 하늘소까지 날아와 사제관 거실을 돌아다니는데도 신부님은 쫓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대신 파이프 담배를 꺼내어 무시고는 한여름 숲의 색을 띠고 있는 하늘소가 묵묵히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양새를 가만히 내려다보신다.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오른다. 새들과 함께 살았다던 성인의 마음이 그러했을까. 가까이 두고 사는 벗을 바라보듯, 신부님의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진다.

사제관의 자매님이 타 주신 미숫가루 한 잔에 더위를 물리치고, 한여름 치명자산 숲속에서 신부님과 싱그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치명자산은 세계적인 순교의 성산이며 축복의 산이다. 신앙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순교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일가 일곱 분의 합장 가족 무덤과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가 묻혀있는 성지, 그 가파른 바위산 벼랑에 성당이 세워져 있다. 또한 그 산자락 아래 숲속 사제관에서 신부님이 살고 계신다. 성(聖) 속(俗)의 구분이 뚜렷한 공간인지라 기도 생활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의 휴식까지 겸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라는 신부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발현하신 모습도 산지기에 있는데, 이 복된 치명자산 성지에서 동정부부 순교자 묘를 돌보는 산지기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며 치명자산 자람에 여념이 없으시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 받아

요한 신부님(64세)은 1942년 1월 31일에 익산의 구교집안에서 출생하셨다. 아

버지 김금동(미카엘), 어머니 한금순(엘리사벳)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나신 신부님은 초대 이리 사목회장을 지내신 조부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다.

어려서부터 성당 바로 아랫집에서 살았던 터라 성당 앞마당은 놀이터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성당에서도 복사를 서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신부님이 중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리하여 어린 나이에 피할 수 없는 홀로서기를 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품어온 사제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 가톨릭 신학대에 진학하셨다.

신부님은 어린 시절 복사로 활동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성광으로 뚜렷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때의 체험이 사제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 줄곧 힘이 되어 주었다.

1969년, 드디어 28세의 나이로 서울 가톨릭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되셨다. 당시 신부님의 동기 중에는 이병호 주교님, 유장훈 신부님, 김영신 신부님 등이 계신다.

초임으로 여산 본당에 발령을 받으신 후 고창, 김제 요촌, 장



치명자산 성당 내부

계를 거쳐 사제가 된 지 10년 만에 교구청 사목국으로 발령을 받으셨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 앞장

그 때가 박정희 정권 말기로 시국 상황이 암울하던 시기였는데, 신부님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일원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시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압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주교구 신부님들은 전국에서 가장 단결이 잘 되는 교구로 소문이 자자할 만큼 일치되어, 주일 강론을 통해 광주 사태의 실상을 교우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 더불어 군사 정권의 광주 민중 학살 음모를 유인물로 만들어 전국의 성당들마다 배포하는 활동도 전개하셨다. 그로 인하여 유인물 배포 혐의로 보안대에 연행되어 문초를 받기도 하셨다. 그러나 사제의 양심으로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민중들의 실상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시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님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신다.

혼란한 시국 상황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교구청 근무를 마치고, 이후 신부님께서는 덕진, 삼례, 전동성당을 거쳐 현재 머물고 계시는 치명자산에 터를 잡게 되셨다. 덕진성당은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신

부님의 열정을 쏟았던 곳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기억되는 본당이라신다. 그 곳에서 재직하시는 동안 많은 영세자가 탄생하였고 동산동, 송천동, 금암성당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다. 송천동성당에서는 성전 건립 사업을 완성하셨다.

사순절 내내 치명자산서 미사봉헌

덕진과 전동성당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사순절마다 교우들과 함께 치명자산에서 40일간 미사를 드리며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고 한다. 특히 전동성당에 근무하시던 시절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업은 고통스러운 성당으로만 알려져 있던 전동성당을 성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윤지충, 권상연 등의 성인상을 세우고 그분들의 삶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던 일이다.

당시에 신부님은 매일 치명자산을 오르며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곤 하셨다는데, 그래서일까. 그 때 신부님 인생의 마지막을 산지기로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딱히 소속된 교우도 없는 치명자산 성지에서 ‘개미역사’가 이어진다. 요한회, 루갈다회, 몽마르뜨회, 치명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례는 물론 성지 꽃길 조성, 성지 안내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해나감으로써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봉사자들과 더위며 추위를 함께 견



치명자산 몽마르트 공원

되면서, 기도를 통해 환난을 이겨내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자갈길을 고르고 꽃길을 가꾸었다. 그로 인해 허리와 목에 디스크 증상이 찾아올 정도의 지독한 육신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치유를 받고 은총의 나날을 지내신다.

치명자산에는 두 개의 성상이 순교자의 성지를 지키고 서 있다. 바로 ‘갯세마니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으로 많은 순례객들에게 신심을 불러 일으키며 위로와 치유를 준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축복의 산이요, 은총의 산이라며 힘주어 말씀하시는 신부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지를 일구어 오신 신부님의 백그라운드는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이 보내온 든든한 응원이 아니었을까.

멋진, 멋진, 참진 삶이모토

신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데살 I 5, 16~18).이라신다. 그 말씀을 닮아 신부님

의 표정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은총과 참만한 기쁨은 넉넉한 미소로써 곁에 있는 이에게도 밝은 힘을 나누어 주는 듯하다. ‘멋진, 멋진, 참진’ 삶을 인생의 3진(眞)모토로 삼으신다는 신부님. 끝으로 들려주시던 신부님의 은혜로운 고백이 일상의 소소한 부족함에도 못내 허기를 느끼고 마는 내 영혼에 파스한 온기를 채워 넣어준다.

“이 곳 성지에는 전례 봉사자도 많고, 나이를 초월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참 부자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는 손길들과 시원한 산바람, 새들의 지저귀, 우리 집을 드나드는 벌레들까지도 모두 나의 절친한 벗들이니까요.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전주 교구 순교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산지기가 지키고 있는 천국의 길목 ‘몽마르트’는 축복의 에텐으로 우뚝 서, 영적 육적 치유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다정한 손짓을 보내고 있다.

* 몽마르트 - 프랑스어로 ‘몽’은 산이요, ‘마르트’는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 산’의 의미로 신부님께서 치명자산에 붙이신 예명이란다.

취재 : 안여진(로사)

사진 : 이규현(루가)

전동성당의 뿌리 전주성당 자리

천주교회의 새로운 변화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 2만5천명 가운데 1만여 명이 희생당할 정도였는데, 10년 후인 1876년 개항 이후부터는 차츰 선교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다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난 뒤로는 교세의 확장은 물론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던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영향력 또한 날이 갈수록 커졌다. 선교사들은 조약에 따라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받으면서 직접 선교를 펼칠 수 있었으며 조선 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프랑

스 법의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공사관을 통하여 정부에 항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불수호통상조약 전에 천주교를 박해하던 조선의 관리들조차 선교사들을 ‘양대인(洋大人)’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였다.

1888년 10월 초에는 처음으로 조선에서 선교하는 모든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정을 가졌고, 이때 블랑(Blanc白圭三) 주교는 처음으로 한복을 벗고 성직자의 복장인 수단을 입을 정도로 천주교에 대한 관리들의 입장이 변했다.



전동성당 발상지 기념비(1991.12.8) 故테콜라(순임)자매 유족현금으로 세움 소양면 신월리 대송마을

도내 최초 전주성당 설립

1886년 가을, 고산 진산 진안지역의 공소를 맡았던 보두네(Baudounet 尹沙勿) 신부는 이 지역의 신앙공동체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간직한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소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눔의 형제애에 대해 “이 공소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초대 그리스도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궁핍하면서도 신분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라며 감탄할 정도였다.

보두네 신부는 1887년 가을판공과 1888년 봄판공 때 고산과 진산지역의 공소들을 순회하고 나서는 상주할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이 더욱 급하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신자 증가로 공소가 늘어나고 있었고 둘째, 일부 신자가 나태해지고 있어 옆에서 성화관리가 필요했으며 셋째, 관리들의 태도변화와 함께 입교의 뜻을 갖고 있는 관리가 있어 교세확장의 좋은 기회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보두네 신부는 1887년에 이어 1888년에도 블랑 주교에게 고산지방에 상주할 신부를 임명하도록 건의하였다.

한편 전주 신앙공동체에서도 상주신부 파견을 블랑 주교에게 건의하였다. 파견요청을 주도한 신자는 배경집(베드로) 회장이었다. 충청도 목천이 고향인 배경집 회장은 초대교회 때 입교한 교우가정 출신이며, 아버지(62세 · 바오로)와 형(35세 ·

안드레아)이 1868년 6월 서울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다.

순교자 바오로의 막내 아들인 배경집은 아버지와 형이 순교하자 고향을 떠나 전라도로 이사했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용안이었고, 얼마 후 소양 대성동으로 옮겨 정착하였다.

배경집 회장이 블랑 주교에게 신부 파견을 직접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77년 블랑 주교가 전라도를 방문했을 때 배경집을 만났다. 블랑 주교는 배경집이 순교자의 아들이고 신심이 깊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1878년부터는 서울 감옥에 갇혀 있는 교우들의 석방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맡기며 석방을 추진토록 하였다.

배경집 회장은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가 장수 큰골에 피신하고 있던 1879년부터 전주지방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서울을 자주 오르내렸고, 블랑 주교를 만날 때마다 전주에 상주할 신부를 보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블랑 주교 역시 전라도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상주신부를 파견하기로 했다.

보두네 신부와 배경집 회장

그리고 신자들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으로 1889년 5월 전북에는 2개의 성당이 세워졌는데,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現 소양면 신원리 대승마을)에 세워진 전주성당과 금구면 배재(現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세워진 배재성당이다.

보두네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전주성당이 탄생한 것이다. 전주성당을 전주시내에 세우지 못한 것은 조·불조약에 의해서 비개항지(非開港地)에서는 선교사가 토지 매입이나 교회건축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감영이 자리하고 있었고 박해의 여파가 남아 있어 신자들이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주에는 신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승마을 진입로

보두네 신부의 숙소는 가난한 초가집의 방 하나였는데 누워서 발을 뻗기도 불편할 정도로 좁았고, 집주인이 빛을 많이 저 신부의 쌀을 가져다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집의 방 한 칸이 침실 겸 집무실이며 미사방이었다.

보두네 신부는 배경집 회장, 박제원 목사, 박경재 목사 등과 상의하여 1891년 6월 23일 전주 남문 밖에 있는 집을 사서 성당을 옮기는데, 이는 오늘의 전동성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신리골의 성인(聖人)들

대성동 신리골(現 신월리 하리마을)에서 살다가 순교한 성인은, 충청도 임천(林川, 現 충남 부여군 충화면)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고을원님을 지내기도 한 정문호(1801~1866 바르톨로메오)성인과 임천(林川, 現 부여군 충화면 지식리) 괴인들 마을에서 태어난 손선지(1820~1866 베드로)성인, 그리고 충청도 진잠에서 태어난 한재권(1829~1866 요셉) 성인이 있다.

정문호 성인은 박해를 피해 유랑생활을 하다가 병인박해 때 전주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골에서 살았으며, 병인박해 첫 해인 1866년 12월 5일 체포되어 13일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손선지 성인은 어려서 입교했으며 16세

때에 샤스탕(Chastan) 신부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되어 순교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1866년 박해를 피해 대성동 신리골에서 담배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전교회장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정문호 성인과 함께 체포되어 13일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한재권 성인은 독실한 신자인 아버지 한언적(도미니코)과 어머니 성주 배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진잠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그의 부친은 전라도 고산 다리실로 피신했다가 가족을 이끌고 대성동 신리골로 이사를 했다. 고향에서부터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한재권 성인 또한 정문호 성인과 함께 체포되어 순교했다.

전주성당 교세

1886년 전복사목은 보두네, 리우빌, 두세, 로베르 신부가 했으며, 교우는 87군데 공소에 신자는 3,604명이었다. 이 중에서 전주성당 보두네 신부의 관할 공소는 31군데로 신자는 1,556명이었다.

도내 최초로 2개의 성당이 설립된 1889년에는 전주성당 보두네 신부 관할 공소는 51군데에 신자는 2,222명이었으며, 금구 배재성당 베르모렐(Vermorel, 張若琴) 신

부 관할 공소는 33군데에 신자는 1,522명이었다.

이러한 공소와 신자수만 봐도 전주성당 설립 당시 모두네 신부의 사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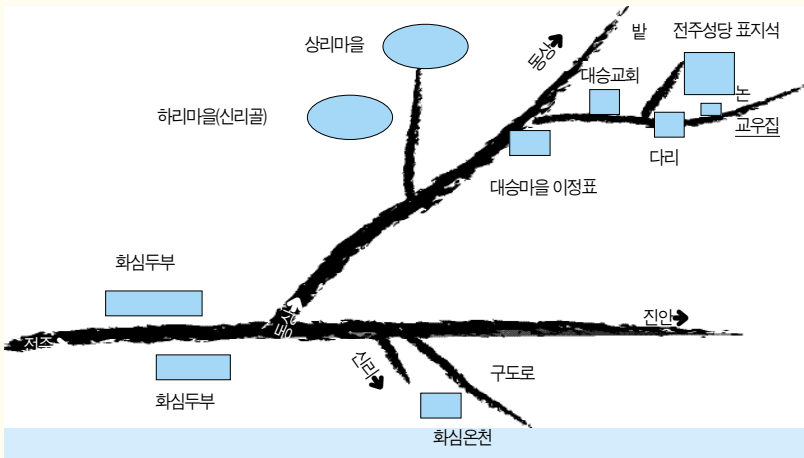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는 순교1번지 전동성당의 뿌리인 전주성당이 있었던 대승마을과 정문호 손선지 한재권 성인이 살았던 하리마을(신리골)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물론 후손에게 신앙을 증거하게 될 것

이다.

(*** 천주교 전주교구사와 가톨릭 사전에 기록된 지명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은 현재 소양면 신월리이다. 신월리는 현재 하리마을, 상리마을, 대승마을로 나뉘어 있다. 대성동 신리골은 현재 신월리 하리마을, 대성동의 중심마을은 현재 대승마을이다)

글 · 사진 | 이 규 현(루가)
지도신부 : 김진소(안드레아)

전주성당터 가는길



평화의 사도, 그 발자취를 찾아



이 정 혁

(보니파시아 · 우림본당)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신 성인(이하 성인 또는 사부님으로 표기 함)의 고향답게 아씨시는 종려나무 잎 파리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평화롭고 아름답기만하다.

성인을 떠올리면 가난, 단순, 사랑, 평화, 형제애, 기쁨 등 많은 단어들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인천에서 로마까지 11시간의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이는 것 모두는 피조물에 대한 성인의 영감이 가장 잘 드러난 성인의 '태양의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있었다. 사랑이 많은 성인, 즉 사랑할 줄 아는 성인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 동료들과 사람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 해, 달, 물, 불, 바람, 별, 죽음 등까지도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사랑하였으니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성인의 사랑은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다.

프란치스코 영성에 있어서 강조해야 할 점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중심이 '사랑이신 하느님'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란치스칸 영성의 원천은 ‘복음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에 근본을 두고 있는 이 생활은 ‘작음의 덕성’과 ‘형제애’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지를 둘러보며 복음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인께서 제시하신 구체적 삶의 길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포르치운쿨라(천사들의성마리아성당)

포르치운쿨라 성당은 성인이 가장 사랑했던 곳으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1회)가 태동한 못자리이며, 초기 동료들과 작은형제회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다. 성인께서 1226년 10월 3일 자매인 죽음을 맞이하신 곳이며 1212년 3월 18일 성녀 글라라가 성인 앞에서 머리를 자르고 착복식을 함으로써 2회 가족(글라라봉쇄 수도원)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포르치운쿨라의 내부는 초기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시대를 거치면서 반

들반들해진 돌들과 더불어 원래의 신비스런 단순성을 지닌 차분함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성당 왼쪽에는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성인은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는 보다 풍부한 은총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한 성령이 자주 내려온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어 형제들에게 "내 아들이여, 이곳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한 쪽 문으로 밀려나거든 다른 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께서 기거하시는 곳입니다." (완덕의 겨울 83)라고 말했다.

장미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800년을 이어오며 재롱을 피고 있는 비둘기 두 마리가 성인 조각상의 주위에서 소리 없이 평화를 그리고 있다. 장미정원에는 성인이 육욕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이 장미 덩굴에서 알몸으로 뒹굴었다는데 그의 몸이 담은 덩굴이 가시가 없는 장미덩굴로 변해

성 프란치스코 대 성당

있었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이 정원의 장미는 가시가 없으나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다시 난다고 한다.

성인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힘에서 얻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는 숙연해졌다.

산 다미아노 성당

다미아노성당은 아씨시 성 외곽 움브리아 평야로 내려가는 언덕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1205년에 이 허물어져가는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중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음성을 듣고 다른 두 성당과 함께 이 황폐한 성당을 재건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쌓아 올린 곳, 조용히 눈을 감고 벽들을 쓰다듬는 형제자매들이 눈에 띈다. 사부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음이라.

1212년에 성인은 글라라와 첫 자매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그들의 수도원이 되었다. 글라라는 이 성당에서 1253년에 죽었고, 그의 자매들도 1260년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성녀 글라라에게 새로 봉헌된 성당



과 수도원으로 이사하였다.

내부에는 긴 의자와 식탁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식당이 있는데, 1228년 글라라가 그레고리오 9세의 권유로 빵을 축복하자 모든 빵에 십자가가 새겨진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 한다.

위층에 올라가니 글라라의 작은 정원과 작은 경당이 있고, 돌아서서 창 밖을 내려다보니 수도원 특유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정원이 있다. 사부님이 돌아가신 후 성당 전면으로 난 조그만 창으로 시신을 메고 가던 형제들이 시신을 높이 쳐들어 보이자, 봉쇄수도원의 자매들이 사부님의 시신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한다.

1240년 수녀원 회랑에까지 쳐들어온 사라센 인들로부터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체를 높이 쳐들어 그들을 물리쳤던 곳이라 하니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

성녀 글라라 대성당

성녀 글라라 대성당은 성인과 밀접한 곳이다. 1190년경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라틴어를 배웠고, 프란치스코가 설교한 장소이며, 성인의 유해가 성인 대성당으로 옮겨지기 전인 1226년부터 1230년까지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1228년에 그레고리오 9세가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성인이

기도했던 성 다미아노 십자가는 안전을 위해 이곳에 옮겨져 소장되어 있다.

지하에 자리한 성녀 글라라 무덤에는 성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1850년 성녀 글라라의 시신이 상하지 않은 채 발굴되어 1872년에 이 시신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한다. 시신의 피부색이 변해가자 1988년 성녀의 얼굴과 손이 밀랍으로 봉해진 뒤 좀더 소박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다. 그리고 유물보관소에서는 성녀의 금발 머리카락, 레오 형제의 주석이 쓰인 사부님의 성무일도, 투니카, 성녀가 만든 긴 옷 등을 볼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 대 성당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은 아씨시에서 주요 성지로 일컬어질 만큼 웅장하다. 성인의 무덤은 세 개의 무거운 석회암 밑에 안장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초기 동료들의 유해, 맞은편에는 사부님께서 형제라 불렸던 야고바부인의 유해가, 그리고 아래로는 형제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얼마나 복된 분들인가!

대 성당이 있는 이 자리는 사형수들이

죽어간 땅이었으나 성인이 문힘으로 천국의 언덕이 되었다. 예수님의 골고타 언덕이 천국의 언덕이듯이 하느님께로부터 프란치스코의 영광이 나타났다. 안내하신 끈벨뚜알 작은형제회 신부님께서서는 무덤 앞 제대에서 "나의 평화롭지 못한 부분을 봉헌하고 평화를 나누어주시시오. 순명의 본질은 침묵이며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에게 안수해주셨다.

굽비오

성인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늑대이다. 성인께서 굽비오 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에게 성호경을 그으며 설교하여 온순하게 길들였던 곳에 성당이 들어 서있다. 성당 안에는 늑대를 받아들이는 성인의 성상이 있고, 성인의 생애를 그려놓은 벽화와 십자가상이 있다. 성당 바로 옆 길 건너편 잔디밭에 있는 늑대상 앞에서 늑대까지도 형제로 여겼던 성인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당시를 상상해 본다.

굽비오에서 성지순례단



라 베르나

라 베르나는 성인이 오상을 받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칸 갈바리오'라 불린다. 이 산은 오를란도 카타니 백작의 소유였는데, 성인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기쁨에 찬 백작이 성인께 선물한 곳으로 작은 계곡을 중심으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이 있다.

여기에는 성인이 1224년에 거처하였던 움막 위에 지어진 십자가 경당,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상흔을 받았던 오상 경당 등 여러 개의 경당이 자리하고 있다.

오상 경당에는 성인의 생애를 그린 벽화가 있고 중간에 있는 문을 통과하면, 작은 동굴에 성인의 침실이 그리고 쇠로 된 침대가 놓여 있다.

성인이 그리스도와 이룬 완전한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에서부터 자기 비하를 보게 했고 마침내 갈바리아의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봉헌물로 바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도록 이끌었고, 일생동안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 순교에 대한 열망과 성지 순례로 인도했으며, 또한 죽음을 2년여 앞둔 1224년 8월, 예수께서 체

험하신 그 사랑(십자가상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인의 육체에 그리스도 수난에 대한 놀라운 다섯 상처-오상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물기 축축한 침실의 쇠 침대, 오상 받은 그 장소에서의 긴 친구(親口), 감동으로 이어진 미사, 오후 3시에 항상 행한다는 '십자가의 길' 참례, 기도하시던 바위동굴 등등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리에띠 계곡

성인의 첫 순례지였으며 만년의 어려운 시기를 보낸 곳으로 이 계곡은 네 곳의 프란치스칸 성지들(그레치오, 폰테콜롬보, 라 포레스타, 포지오 부스또네)에 의해 거의 십자가 형상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 구원 체험의 은혜를 받은(1첼라노 26) 포지오부스또네, 베들레헴 사건을 재현하여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방법이 되게 한 그레치오, 프란치스칸 생활회칙을 썼던 폰테콜롬보를 돌아 본다.

광장 오른쪽에 있는 성당의 옆 층계를 따라 내려가면 초기 은둔소가 나오는데, 두 개의 작은 경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나무를 꺾어 만든 듯한 십자가가 성인이 주무시던 바위 옆에 세워져 있다.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시간이 주어



폰테콜롬보 기도 장소

저 십자가 앞 돌 바닥에 자리하고 앉으니 눈물이 실새없이 흐른다.

그레치오는 해발 705미터의 조용한 산골마을로써 성인은 임종하기 3년 전 성탄에 이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구유 전례를 집행하여 전 세계에 유포된 곳으로 ‘프란치스코의 베틀레헴’이라고 부른다. 전승에 의하면 성탄 자정 미사 중에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이 눈을 뜨셨다고 한다.

미사 후 성당 위층에서 각 나라별로 꾸며진 구유들을 보았는데 한복차림의 우리나라 구유도 있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표양을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 거룩한 행실로써 우리는 그분을 낳게 됩니다.”라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도록 초대하는 사부님의 말씀과 함께 미소짓는 아기 예수를 뵈는 듯 가슴

이 벅차 오른다.

성인은 1217년 ‘비둘기의 샘’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폰테콜롬보를 방문하였는데, 전설에 의하면 프란치스코가 숲속을 헤매다가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샘물을 찾게 되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회칙(수도규칙)을 쓰신 성 미카엘경당, 눈 수술을 위해 마지막으로 머무신 성인 은둔소, 20세기에 발굴된 성인이 직접 쓰신, 지금은 프란치스코의 상징물이 된 타우(T)자국이 있는 막달레나경당 등이 있다.

삶의 터전으로

매순간의 삶이 회개생활로 이어져 기도와 성사생활로 힘을 얻고, 겸손과 성실함과 인내와 참 가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의 그리스도께 청하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를 흠치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 살아왔다는 지난날의 후회 때문일까?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신 사부 성 프란치스코여, 우리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온전히 주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깨비와 오줌싸개

글 : 김여울(프란치스코 · 아동문학가)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어렸을 때였다. 예닐곱 살쯤 되었을까?
산골 마을에서 자랄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나는 오줌싸개로 소문이 나 있었다. 밤마다 이부자리에 질펀하게 지도를 그려댄 데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야 우석이, 너 또 오줌 싸구나? 넌 무슨 고추가 그 모양이나? 혹시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밤마다 이부자리에 지도를 그릴 이유가 없잖아?”

삼촌은 늘 하던 대로 인정 사정 없이 이부자리를 걷어차며 대궐 수로 눈을 흘겨댔다.



정말 모를 일이었다. 나는 어째서 밤마다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대는 것인지 아무리 곰곰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오줌을 안 싸겠지’ 하는 생각에 큰 맘 먹고 낱밤을 세우려고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조는 사이에 철철철 오줌을 싸대고는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나는 자연 집안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마련이었다. 아버지는 아예 나만 보면 눈을 부릅뜨시는 게 일과였다. 어머니는 내 고추가 고장이라도 났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애 절로 한숨을 내쉬고는 했다. 고추가 고장이 나면 예쁜 색시에게 장가를 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읍내 중학교에 다니는 삼촌이라고 특별히 나를 게 없었다.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되는 삼촌이었다. 내가 오줌싸개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장본인이 바로 삼촌이었으니까.

“어이구, 도깨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야. 당장 우리 집 오줌싸개를 업어가지 않고…”

삼촌은 걸핏하면 도깨비란 말을 입에 올렸다.

나는 그래도 삼촌이 좋았다. 삼촌은 나를 놀려대면서도 잠을 잘 때는 꼭 한 방에서 같이 잤고, 항상 새롭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삼촌은 굉장한 이야기꾼이었다. 그 중에서도 삼촌은 도깨비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다.

골목길만을 골라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달걀 도깨비, 쓰다 버린 몽당빻자루 도깨비, 부서진 상다리 도깨비, 찌리비 도깨비, 사금파리 도깨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오늘 저녁엔 무슨 얘기를 해 줄까?”

“삼촌, 기왕이면 좀더 무시무시한 도깨비 이야기를 해 줘.”

내가 지금까지의 도깨비 이야기는 시시



하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원했을 때였다. 삼촌의 눈빛이 전에 없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그래? 그렇다면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 으왓,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으스스하겠는데?”

“아니야, 관두는 게 좋겠다.”

“아이 참, 삼촌...”

“안 돼, 애길 듣고 나면 네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야.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는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아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업어 가는 아주 무서운 괴물로 알려져 있거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걸.”

“맙소사, 오줌싸개 이상 말썽꾸러기가

어딴다고?”

“뭐야? 삼촌, 관둬 관두라고.”

나를 말썽꾸러기로 못 박고 있는 삼촌의 말에 나는 몹시 속이 상해서 팩 토라져 돌아눕고 말았다.

“우후후, 자기가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알긴 아는 모양이로구나. 그러게 진작 고추 간수를 잘 했어야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밤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마당가에 명석을 깔고 나앉아 훗훗 달아오르는 더위를 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한가롭게 밤하늘의 별을 헤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그날따라 어째서 삼촌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머리 위를 확확 날던 반딧불이의 기세도 한풀 잦아들었다고 생각되는 시각이었다.

아버지가 별안간 발은기침을 했다고 느꼈을 때였다.

“오메, 저것 좀 보소. 저기 동구 밖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불덩이... 저것

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해골 도깨비 아니요?”

“맞구먼. 해골 도깨비가 틀림없어. 내가 지금 우석이만 했을 적에 한 번 보고 이번이 두 번째 같은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구먼. 쪽 찢어진 입이랑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 해골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말야.”

“아이고 무서워라, 저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난 까닭이 뭘까요? 가만가만,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는 어느새 어머니의 팔을 짚지 끼듯 짝 움켜쥐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등골에서 뽕뽕 찬바람이 이는 소리가 났다. 머리털이 몽땅 하늘로 뿔쳐 올라가는 것만 같았다.

“삼촌은 어딜 가서 왜 하필 이런 때 보이지 않는 걸까?”

나는 비로소 삼촌을 생각하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젠가 말썽꾸러기들만을 골라 업어 간다고 한 삼촌의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

문이었다. 말썽꾸러기를 업어 가서는 무엇을 할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살래살래 머리를 젓고 말았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쭉 끼쳤기 때문이다.

“싯, 해골 도깨비가 어느 집으로 가는지 잠자코 지켜 보도록 합시다. 제발 우리 집만은 피해 갔으면 좋으련만. 우리 집엔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가 업어 갈 정도의 말썽쟁이가 없으니 안심을 하지만...”

아버지가 넋짓 하시는 말씀이었다.

“오메, 해골 도깨비가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지 뭐예요? 우리 집에 무슨 말썽쟁이가 있다고 오는지 모르겠네. 아이쿠메 우석아, 아무래도 너 때문인가 보다. 네가 밤마다 이부자리에 오줌을 심다는 소문을 듣고 너를 업으러 오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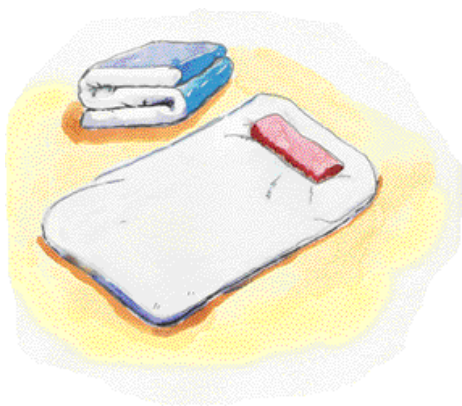
“자 잘못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로 오줌 같은 것 안 심 거라고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막무가내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로 끼여들어 후들 후들 몸을 떨었다.

“방금 한 말 사실이나? 절대로 오줌 안 심겠다고 한 말?”

아버지가 다짐을 받듯



물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아무렇게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한테 업혀 가지만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메, 해골 도깨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섰어요.”

“우석아, 기회는 바로 이 때다. 얼른 큰 소리로 해골 도깨비한테 약속을 해라. 다시는 밤에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다짜고짜 나를 안아 일으켜 세웠다. 나는 오금이 저리고 떨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큰소리로 외쳤다.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님, 다시는 오줌을 안 싸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고추가 어째서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는

지…”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 집 앞 골목길 모퉁이에 커다란 수박등 모양을 한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가 너무 무서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만년 오줌싸개가 웬일이냐? 오늘 아침엔 이부자리가 말짱하니 말야? 와,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가 무섭긴 무서웠나 보구나!”

이튿날 아침이었다. 밤새 보이지 않던 삼촌이 내가 덮고 있는 흙이불자락을 들추며 하는 말이었다.

“아니, 삼촌이 그걸 어떻게?”

“다 아는 수가 있지. 귀여운 조카의 오줌싸개 버릇을 고치는 일이었는데 뭐.”

삼촌은 그 말을 끝으로 행하니 방문을 나서고 말았다.

내가 외눈박이 해골 도깨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오랜 시일이 지나서였다.

—끝—



금강변 갈대 | 172×134cm | 수묵담채

첫서리 내린 날, 금강 하구둑 갈대숲에 철새를 보러갔다.

철새는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

시작과 끝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시작과 동시에 끝을 향해 가는 것이고

끝에 가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생명의 순환이며 우주의 원리이다.

우리는 이에 순응해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돌아갈 곳이 결국엔 흙이기에…….

이 재 승 (다니엘 · 삼천동본당)



잊지 못할 사목 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김 의 철 신부
(고창본당 주임)

예수님은 가난 고통 절망 깊이 이해

예수님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이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인생의 고해를 건너야 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느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리듯 예수님 역시 가난하게 사셨기에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거들면서 가재도구

를 만들고 집수리도 도와주며 땀 흘려 일하셨을 것이다. 삶의 고난을 직접 겪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생에 드리워진 가난과 고통, 절망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셨다. 그러기에 가난한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사람들이 쉽게 병마에 걸리고, 그래서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잘 아셨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은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 모두 넉넉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나누어 모두가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가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사업 펼쳐

고창 성당에 부임해 보니 자활후견기관 의 장을 맡아야 했는데, 이 기관은 자활사업을 후견해 주고 보살펴 주는 일이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되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통해 급여를 받도록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며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옛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며,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체념 섞인 말이기도 하다. 빈곤을 퇴치하는 일은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도움을 받는 이들도 쉽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일. 이제 우리나라도 살만하니

자활후견 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제사업팀이 재봉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의 그늘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현해 나가려고 문을 활짝 열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복지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최저의 수준에서 최적의 수준으로, 전 국민 모두가 두루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제공자립의욕복돋아

무조건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일반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가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자활사업과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고 경영과 판로개척까지 지원해준다.

고창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봉제사업팀이 마대 제작을 위해 원단을 재단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 간병인 사업

지역 내 병원에 파견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간병 실시, 일반인 대상으로 유료간병 및 산모와 아기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환경정비 및 재활용 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주변 환경개선 및 청결 유지 작업

3. 봉제 사업

재봉기술이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마대작업과 매트리스 커버를 제작하고 있다.

4. 복합영농 사업

잔디 및 묘목 가꾸기, 유기농 야채 생산, 복분자 재배,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5.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및 장애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



복합영농사업 참여자들이 밭에서 유기농 농작물을 기르고 있다.

체와 계약을 맺어 현물급여 집수리를 해준 다.

그리고 봉제사업에서 창업한 공동체로 세탁 빨래방이 있다. 총 참여자 수는 100여 명, 이들을 도와주는 직원으로는 각 팀장과 실장, 관장 등 총 7명이 근무한다.

자활후견기관은 희망의버팀목

자활후견기관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산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기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참여자들의 급료로 쓰여진다.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운영지원위원

회는 후견기관을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자활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늘날도 각 사업단에서는 땀을 흘리며 희망을 일구어가고 있다.

사제관에 있어도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

리, 푹푹푹 집 고치는 소리, 참여자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후견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참여자들은 우리 기관을 신뢰하여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후견기관 역시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하겠다. 좋은 일에 뛰어드는 봉사자들과 참여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희망차게 사랑의 삶을 사시길 기원한다.

◆ 여름옷의 아무진 관리와 보관 ◆

① **여름옷과 침구 세탁요령** : 여름옷은 잘못 보관하면 땀과 습기 때문에 퀴퀴한 냄새도 나고 색이 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곰팡이의 공격 대상이 되는 습기와 땀이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옷은 보관하기 전 세탁할 때 식초를 약간 넣어 빨면 곰팡이도 방지할 수 있고 색상도 선명하게 유지된다. 흰색 면류는 세탁 후 표백제를 넣고 10분 정도 삶은 뒤 행귀서 충분히 말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행굴 때 찢뜨물을 이용하면 자연스런 표백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여름옷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려면** : 옷을 옷장에 넣기 전 바람을 쐬어줘야 하는데 날씨가 며칠 계속 좋아 공기 중에 습기가 없는 날이 좋다. 바람이 심한 날은 먼지가 탈 우려가 있으니 바람은 적당히 부는 날을 고른다. 니트나 천연 소재 옷은 먼지를 확실히 털어야 곰팡이나 좁이 슬지 않는다. 오래 보관할 옷은 수납장 아래 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넣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여름 니트류는 부피가 작아 보관이 간편한데 배달된 지 얼마 안된 신문지 한 장을 반으로 접은 후 옷 사이에 끼워 넣으면 방충효과도 볼 수 있다. 여름옷을 다음 해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방습제와 방충제는 필수다.

③ **여름철 모시·마 의류** : 드라이클리닝만으로 땀과 얼룩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면 집에서 드라이클리닝 세제를 이용해 세탁한다. 목이나 소매 등의 묵은 때는 미지근한 물에 고급 알코올 세제 3% 정도의 액을 만들어 부드러운 솔로 두세 번 두드린다. 여름철 소재인 마는 비벼 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시·마 제품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차칫 옷의 형태가 변하기 쉽다. 다림질로 모양을 잘 잡은 뒤 창호지에 싸서 보관한다.



베토벤 교향곡 9번 - ode to joy



서석희 신부
(홍보국장)

고뇌를 통한 환희 신을 향한 찬미 노래

인류역사 속 불멸의 교향곡

1 베토벤의 교향곡 중 9번 교향곡은 음악가였던 베토벤 예술의 최고의 절정이자 오늘날까지 만들어진 교향곡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CD음반을 최초로 상용화했던 소니와 필립스사가 당시 최고의 지휘자였던 카라얀의 조언을 얻어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연주시간인 74분을 기준으로 직경 12cm, 지금의 오디오 시디를 만들 만큼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불멸의 교향곡으로 인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 교향곡은 네 사람의 독창과 중창, 그리고 대형 합창이 교향곡에 사용된 최초의 음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음악을 작곡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이미 20대의 젊은 시절부터였고,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야 완성한 곡이었음을 감안할 때, 9번 교향곡은 베토벤이 전생애에 걸쳐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을 완성할 즈음에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멀어 음악의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무한한 고통과 싸워야 했고, 육체적인 건강의 악화와 가난 때문에

그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는 고뇌를 맞본 환희를 신을 향한 찬미로 영원히 노래 부르고 표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어떤 역설적인 숭고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1787년 모짜르트를 찾은 베토벤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연주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투병중에 친구들이 침상에 둘러앉아 베토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다.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창조와 그렇게 이루어 놓은 우주와 만물을 두고서 터질듯한 감동으로 신을 향해 환호하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과 나눔, 그로 인한 기쁨의 향연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도 돌아올 자녀들을 기다리며 주방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 맛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음식 맛에 찬탄하는 모습이랄까.

하느님의 외로운 창조활동 묘사

9번 교향곡은 전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가끔씩 나타나 뭔가 이루어내는 느낌 가운데, 조용한 창조행위가 계속되는 음악이 흐릅니다. 조금은 지루한듯 하고 조금은 외로운듯 하며 나타나는 우리 귀에 익숙한 주멜로디, 그 멜로디는 아주 오랫동안 우주와 만물을 이루어내는 하느님의 외로운 창조활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3악장이 지나고, 4악장이 조금 지나는 순간, 리드미컬한 팡파르가 짧은 명상을

깨뜨리고 올리다가 몇자, 갑자기 힘차게 튀어나오는 바리톤의 우렁찬 독창은 하느님의 기나긴 창조 행위 끝에 나온 인간 아담이, 드디어 기나긴 시간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향해, 그분의 창조질서에 대해 감탄하는 최초의 아담으로 느껴집니다.

‘오! 벗들이여 이 가락이 아니고 더욱 즐거운 가락 그리고 환희에 넘친 가락을 함께 부르자!’

감탄과 감동의 메아리

2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역사에 나선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님은 외로운 창조 행위를 해 오셨는가? 어느 누구 하나 그분의 창조에 가타부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리톤의 독창과 함께 계속 둘, 넷, 대합창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향해 일제히 외치는 거대한 합창은 마치 시편 저자가 표현하듯이, “하느님 내 주

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묘하신고!”라는 감탄과 감동의 메아리가 솟구치는 그 정점에서 이제야 하느님의 노고에



침대에 누워 죽은 베토벤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



비엔나에 있는 베토벤의 동상

대해 치하하는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함께
이제는 성인(成人)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인간의 탄생에 존경과 감사

3 오랜 지구의 역사, 아니 더 나아가
이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어느 피
조물도 하느님을 향해 그분이 창조하신 이
질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느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독 인간만이 하
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질서에 대
해서 감탄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그분께 반
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난 자
녀가 오직 주는 대로만 먹고 자기를 돌보
아 달라는 요청 아닌 요청 속에서만 지내
다가 어느 날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
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향해
'감사' 하는 이런저런 반응을 보일 때 그
부모 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하
느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늘 유아
기의 상태만 있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인
간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창조하
신 질서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
시겠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음악이 제게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입니다. 하느님을 제
대로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이제는 하느
님과 함께 제대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며

우주창조와 인간의 탄생에 찬미와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인간의 대 서사시인 것입니
다.

철든 인간 하느님 역사 대열에

마태오 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베
드로의 신앙고백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제대로
알아보고 감동하며,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예수 그
리스도를 제대로 알아 본 최초의 고백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 인
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느님을 유아기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철든 인간의 모습, 바로
인간 최초의 파노라마한 고백이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루
어진 것입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으로 치
자면 지금까지는 3부까지였고, 드디어 4
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뒤를 따르고 그분 역사의 대
열에 있어야 하는지, 그 엄숙한 외침 안에
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成人)된 세계에서 철든 인간이 된
다는 것, 하느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된다는
것,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그런 인
간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신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루가 10,30~35) -



허경택

(베난시오 · 요자동본당)

“누룽지는 철분 섭취에 좋으면서요. 크
큽.”

젊고 아름다우신 정 교수님을 골려주기
위한 친구의 말뼌집이다.

영양학 강의시간에 의문을 가장하기는
했지만, 다분히 농이 섞인 질문이어서 동
급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 생각은 어때요?”

“누룽지를 굽어내는 과정에서 솔바닥
에서 철분이 다수 불지 않을까요?” “그렇
게 만들어진 철분이라면 우리 몸에서 흡수
할 수는 없지요. 소화할 수 있는 영양소로
서의 철분은 채소에 들어 있거나 흡수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든 비타민제가 아니
면 말이지요.”

신입생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얼
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전문가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누룽지에는 솔바닥에서
달라붙는 철 이온에 의해 실제로 철분 섭
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이런 체험은 세상사의 문
제는 결국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
이 그 존재물의 얼마만큼을 수용할 수 있
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뜻이다. 수

없이 존재하는 지식이나 인간사의 문제를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생각과 생활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성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바탕으로 깊이를 더하는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은 성서의 말씀 내용에 우열을 정하거나 비중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순서 혹은 수용의 정도를 마련하는 준비 단계라 해도 좋을 것이다. 심오한 말씀의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부분에 대한 이해나 반복을 통하여 전진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선이면서 최고선인 선행

루가 복음 10장 33~35절의 말씀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음을 끌어잡는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종교적인 입장이나 사회적 입장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우대받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불경건한 이들의 대표로 보고 거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만 그는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 없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성심껏 도

와서 생명을 구해준다.

이 비유에서 보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선으로 갖추어야 할 덕행이지만, 비신자에게는 최고선의 수준이 되는 덕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육상 경기에서처럼 최저선이면서 최고선이 되는 셈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모태

종교적 수련이 없는 비신자에게서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 공동체로서 이만한 덕행을 베풀 수 없다면 세속적 의미에서도 참다운 이웃이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an law)’은 출발한다.

긴급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구조를 실행하지 않는 행위 즉 ‘구조 거부행위’를 최초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 구형법은 처벌 이유로 이웃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고려를 무시하고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비윤리화 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 작업이랄 수 있다.

이 법안은 핀란드, 터키, 이탈리아, 네

덜란드, 독일,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어 범법자에게는 벌금형 혹은 구류, 징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있음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이나 위기에 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수효일 것으로 짐작된다. 성서의 한 말씀이 실생활에서 실정법의 바탕이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힘으로 작용된 것이다.

성서말씀은 실생활과 밀접

성서의 말씀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과 내용만을 담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살아 숨쉬고 실제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종교적 덕목이고 실천적 항목이다. 평화시에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이 전시에 탱크를 만드는 공장으로 변환되듯이 성서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에 실정법의 바탕이 되는 보석들인 것이다. 이 값진 보석들을 갖고 닦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실천을 궁리해야 한다.

19세기 사회의 비인간화, 비윤리화의 사회적 흐름이 성서 속에 보석으로 감추어졌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탄생시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살벌하리만치 극단화된 현대의 혼란은 성서의 또 다른 어떤 비유를 근거로 하는 실정법이 만들어질 법하지 않은가?

편리 · 쾌락추구 제재법 필요

마태 복음 14절의 달란트 비유가 아닐까 싶다. 하느님이 주신 자녀 출산 의무를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편리와 쾌락을 쫓는 현대 사회의 풍조는, 사회의 종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종말을 막기 위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리라. 이 법안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태한 정도만큼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은 달란트를 더 늘리는 데 쓰지 않고 땅에 묻어 시간을 낭비한 어리석은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달란트 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달란트 법’이 나오는 시대가 오지 않기를 빌고 싶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대의 비인간화, 비윤리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듯이 ‘달란트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사회의 비극적 전락이 얼마만한 깊이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❶ 취중에 생긴 일

병달이가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한쪽 발은 차도에, 다른 한쪽 발은 인도의 턱에 두고 걸었기 때문에 계속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쯤 갔을 때 경찰이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건넸다.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댁까지 함께 가드리죠.”

아주 친절한 경찰이었다. “정말 내가 취한 게 확실한 거요?” 병달이가 확인하듯이 물어보았다.

“예,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병달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후우!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군요. 난 내가 갑자기 절름발이가 된 줄 알았수!”

❷ 어떤 광고

전봇대에 아주 눈길을 끄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내용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잃어버린 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개는 저랑 같이 아주 오래 지내온 사이라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귀여운 개를 꼭 찾아주세요.

눈은 조금 올라간 편이고, 긴 혀를 날름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진돗개인 양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잡

견입니다.



개를 잃어버린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는 분께는 잡아서 한 근 드리겠습니다. - 개주인 백 -

❸ 임금님의 외출

옛날 임금님과 영의정이 세상물정을 알아보려고 평민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날은 뜨겁고 갈 길도 멀고 해서 어느 주막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막 기둥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다.

손님은 왕입니다!

이를 본 영의정이 당황하며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들켰사옵니다!”

다시 읽고 싶은 글 모음



우리 교구 내에는 본당 월보, 사도직 단체나 신심단체 회보 등 유인물에 많은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 내용이 소박하고 진솔하고 아름다워 읽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중한 글을 한정된 사람만이 읽고 그치는 경우가 많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따라 ‘쌍백합’에서는 이런 글들을 모아 ‘다시 읽고 싶은 글 모음란’에 실어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나누고 체험하며 삶과 신앙생활의 길잡이와 활력소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 실린 어떤 글은 편집상 보태거나 빼기도 했음을 밝히며 글쓴이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위에서 접하는 유인물이나 사이버상에 실린 글들 가운데 내용이 유익한 것이 있으면 ‘쌍백합’ 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낙인찍힌 왕신자!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멀리 비쳐본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깊이 비쳐본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른 빛에서 비쳐본다.



예수께서 소경을 치유한
기적을 읊은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다.
비록 육신의 소경은 아니었지만 캄캄한
영적 세계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서 헤매던 영적 소경이었던 내가, 견진성
사를 받아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관조하고 구원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되었
으니 거듭 눈을 뜬 셈이다.
영세한 지 채 몇 달 지나지 않아 받게 된

견진이라 어리둥절하기도 하지만, 때론
교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
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타성과 나태, 삶의
습관들에서 벗어나려는 의식들이
몸속에서 조금씩 꿈틀거린다.
주교님께서 영혼의 인호를 이마에
새겨주실 때에는 의식의 장중함과
주교님의 위엄에 기가 눌려 실수
나 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 외에 무
념, 무상의 시간이었지만, 따져 생각
하면 목자가 기르는 소나 말들에게
하듯 내 이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으셨으니, 나는 어
쩔 수 없이 낙인찍힌 왕신자가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자유(자유인지
방종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를 반납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속이 시작되었
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직 성령의 율타리
너머 혼탁한 세계를 넘보는 나이롱(예전엔
가짜를 이렇게 표현) 신자지만, 시도 때도
없이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며 무조건 주
님의 뜻을 따른다면 언젠가는 번듯한 왕신
자가 되지 않을까?

이름모를 시인의 시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보자 다짐하는 요즘이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구요?

헤아려보죠.

비록 그 빛 안 보여도

존재의 끝과 영원한 영광에

내 영혼 이룰 수 있는

그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사랑합니다.

태양 밑에서나 또는 촛불 아래서나...

전동본당 월보 '순교일번지' 8월호

윤대근(돈 · 보스코)

말씀의 위력

천주교 집안에 태
어나서 내 의지
와는 상관없
이 세례를 받
게 되었고 주
일이면 어김없
이 미사를 참례
해야 했다. 내게 신앙
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태
어나기 전 이미 결정지워진 운명 같은 것
이었다.

어릴 땐 재미있는 이야기며 신나는 노래
를 가르쳐주시는 교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을 보러 성당에 나갔고, 조금 커서는 그 동
안 세뇌(?)당한 신앙교육 탓에 웬지 성당
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생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당
에 나갔다.
그래서 때로
는 성당 다니는
문제로 부모님과 다
투기까지 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의무감만
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리교사를 시작
했고, 그때 한창 봄이 일고 있었던 성서공
부를 시작하게 됐다. 단순히 미사 때 성서
말씀을 듣거나 가족기도 시간에 잠깐 잠깐
읽던 성서 말씀만 접해 봤던 터라 성서공
부를 통해 성서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어린 아이가 처음 글을 읽게 되었을 때의 설렘과 비슷한 것이었다. 거기에 덧붙여진 생활 나눔은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내 삶 속의 하느님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소모임으로 성서를 공부하고 마지막 단계인 전주 청년성서 창세기 연수에 들어갔다. 그곳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별천지의 세계였다. 하느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같은 젊은이들이 하느님 때문에 울고, 하느님 때문에 웃고 있었다. 힘든 일정 속에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에는 빛이 나고 더욱 싱싱해졌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상처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 짧은 3박 4일의 연수를 위해서 3개월간 거의 매일같이 준비해온 봉사자들은 지쳐 쓰러지면서도 기쁜 얼굴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피곤에 지친 그들의 얼굴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

말씀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다. 끊임없이 냉담하고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며 따져 묻던 젊은이들이 말씀에 한번 맛들이고는 그 하느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끊임없이 말씀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느님을 몰랐더라면 정말 편하게 세상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느꼈던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이내 그런 생각들을 접고 만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

진리가 곧 말씀임을 알고 나서, 또 그 말씀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느꼈던 그 설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릴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성당에 다니며 때론 성당 다니는 것에 회의를 품고 반항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최대의 유산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데에는, 진리이신 말씀이 내적 자유와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내 신앙의 정도는 알기만 하다.

언젠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개신교 신자가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니요, 성당 다녀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 이어진 개신교 신자의 말에 분개하고 말았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는다면서요? 성경공부는 해요?” 그때 한참 성서공부를 하고 있던 때라서 천주교 신자들도 성서공부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성서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 자리에서도 망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신앙의 원천인 성서도 모르면서 성당에서 봉사하고,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하는

것은 알곡이 빠진 쪽정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하지만 말씀이 주는 위력을 모른다면 그 신앙의 뿌리는 결코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술내본당 월보 ‘술내’ 2월호
김민호(글라라)

성가정의 축복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 당신을 바라볼 자신도 염치도 없는 저에게 아니 저의 가정에 크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6년 전 시이모님의 권유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당에 가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미사에 참례하였고,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남보다 긴 교리를 마치고 아이들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기쁨을 느꼈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레지오 활동

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음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때부터인가 저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실패요, 직업은 수없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때부터 저는 직장을 나가게 되었구요.

힘들다 보니 불만, 원망, 미움, 외로움 등 좋지 않은 단어들이 다 제 마음속에 가득차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 겨우 겨우 미사참례만 하게 되었지요. 소극적인 저의 성격에 밖으로 표현도 못하고 늘 가슴앓이를 하면서 굳게 닫힌 마음을 예수님께,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 주세요. 그릇된 생각들 다 버리고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감

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라고,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주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성가정 되게 도와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남편이 세례를 받고 아이들도 냉담을 풀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드릴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해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마동본당 월보 ‘바라봐’ 4월호

이경희(세실리아)

복음의 날개 달고 ‘훨훨’

내가 평생 견지 못하는 장애인의 몸이 된 것은 돌이 채 안될 무렵 심한 열병을 앓고부터였다.

어린 시절 나는 몸도 불편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형제들 책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세가 되어 이모부의 소개로 재활원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 식구들 곁을 떠나온 나는 너무나 슬퍼 그곳에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갔는데, 말로만 듣던 십자가와 성경책을 난생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두손 모아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하염없이 울었다. 하느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어 당신 곁으로 부르셨나보다. 그 후로 믿음은 날로 더해져서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느날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일로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금은 시계 기술을 배워 금은방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평소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모습

이 밝고 평화로워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봄 한광희(보니파시오) 처남의 권유로 김정식(로제리오) 씨의 노래와 말씀 피정에 초대되어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성당에 오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서니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반겨주셨다. 나는 “나의 하느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 못난 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야 왔습니다.” 하고 기도드렸다. 김정식 씨의 말씀과 찬양은 나를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었다.

작년 성탄절에 우리 가족은 세례를 받아 나는 데시데리오, 아내는 크리스티나, 아들은 시몬으로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느님은 두 다리를 못쓰는 나를 성가대원으로 불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셨고, 레지오 단원으로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택하여 주셨다. 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없이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도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못쓰는 장애의 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두운 그늘에서 밝은 빛을 찾아 주님 말씀을 행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날개를 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새처럼 ‘훨훨’ 날아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시데리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날마다 두손 모아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나운2동본당 월보 ‘나운이’ 5월호
강종민(데시데리오)

남보다 하루를 먼저 살아가며



저에게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도, 도망치고 싶어도 차마 그리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의 큰 은총을 누렸지만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핑계로 저는 어느덧 뒷걸음질치는데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잃은양 취급받는 게 싫었고 ‘내가 누구였는데’라는 자만심에 코웃음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를 베푸시어 돌갈던 마음을 서서히 부수시고 제 발로 당신 집의 문턱을 넘게 하셨습니다. 어느 구역인지도 모른 채 나운2동성당을

찾았고 제 교적은 드디어 묵은 먼지를 털고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심하게도 하나님은 그 감격의 떨림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 어깨에 짐채만한 십자가를 얹어주셨습니다. 전 주저앉아 일어설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죄어드는 그 무게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좌절 속에서 한가닥 실오라기 같은 끈을 잡으며 그 래도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도망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즈음 수녀님의 눈에 띄어 제대 꽃꽂이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툴게 가위를 잡았습니다. 그저 취미로, 때론 삶의 돌파구로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는데 과연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제 능력밖의 일이었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구상을 하고, 재료를 택하지만 부족한 느낌, 아쉬운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인지 저도 모르게 그 저 하나님께 내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위질하는 제 손끝에 머무르시어 꼭 함께 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며칠 전부터 구상하고 묵상한 작품은 딱 하루 전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 제대 앞에 펼쳐집니다. 부활도, 성탄도, 기쁨도, 슬픔도 하루를 먼저 맞이하는 은총을 부족한 제가 누립니다.

지금 돌아보면 절망속의 그 세월이 그리 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도 못건더 몸부

림쳤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고통은 제 영혼을 성숙시켜주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일상의 평범한 생활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문득 미사 중에 불렀던 성가가 흥얼거려집니다.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애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

나운2동본당 월보 '나운이' 5월호
장영란(수산나)

멀리 돌아온 길

기억 하나.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방 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압정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진이었는데, 처음엔 당황스럽고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왜 그런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지. 나중에 사진을 걸어 놓은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 - 사제가 되기 위해 서품을 받는 모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억 둘.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

니다. 중학교 때부터 심취해있던 염세주의 철학으로 인해 갈등하던 시간들이었는데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학교를 빠져나와 찾아간 곳은 학교에서 가까운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녀님과 삶과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억 셋.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던 제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행사 중에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학생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참 열심히 했었는데 그날

의 일은 제 신앙과 믿음에 대
해 생각하게 했습니
다. 왜 나는 선택
받지 못했나 참
담하고 아프
고 그리고 회
의에 빠졌습
니다.

그리고...

결혼 후 사느게 힘
들고 지쳐서 그 동안 찾지 않
았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
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식구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종
교문제로 다투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
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은 성당
에 다니자고 했지요. 선택만이 제게 있었
습니다. 교회냐 아니면 가정이나. 저는 가
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성당이나 교
회나 방법의 차이 즉 마음의 문제라 생각
해서입니다.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성당
에 가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
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는 동안 은총이
를 받고 몸조리하는 동안 혼자서도 열심히
하는 신앙을 보고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
했습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일로 냉담을
하다가 다시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
꼈습니다.



또한 2004년은 개인적인 일
로 바쁜 와중에 견진을
받느라 고생하면서도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인데 멀리 돌아
왔구나' 하는 생
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제 마음의
고향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아니었나 봅니다.

기억 하나에 있던 사진속의 신
부님이 견진을 받는 동안 생각나고 어린
제게 상담을 해줬던 이름모를 수녀님도 생
각났습니다. 바로 길을 깨닫지 못한 건 고
통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알 수 있어서인
가 봅니다.

지금도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지
만 그래도 제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언
제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신랑에게 고
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태해지려
는 저를 옆에서 격려해주는 은서, 은총이
에게도... 가족이 함께 영세를 받고 함께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무한한 행
복을 느낍니다.

마동본당 월보 '바라뵈' 5월호
채순이(마르첼라)

묵상(默想)하나



지난 여름, 중인리
쪽으로 모악산을 오
르다가 염불암 조금 못미처
잠시 땀을 식힌 적이 있었습니
다. 그때 우거진 숲속에서 작고 가느다
란 떡갈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햇빛은
큰 나무들이 모두 차지하고, 큰 나무들의
무성한 잎 사이로 몇 줌의 햇살이 겨우 새
어나와 가까스로 잎사귀 몇 개를 달고 있
었습니다. 몇 미터만 옆으로 자리를 옮기
면 풍요로운 햇빛과 제대로 성장할 수 있
는 충분한 토양을 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나무에게는 그만한 자유마저 허용되지 않
았습니다.

잠시 꿀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꿀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입니다. 일벌은 태어난 후 2시간
정도 다른 일벌이 먹여주는 왕유와 꿀을
받아먹은 후 평생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번데기로 있었던 벌
집을 청소하고, 일주일 정도 화분을 먹고
서 왕유를 생산하여 알에서 깨어난 유충을
키우고, 일주일 정도는 다른 일벌이 채취
한 꽃 꿀을 받아 다당을 단당으로 분해시

킨 후 수분을 증발시켜 저
장하고 밀랍을 생산하여 새
벌집을 증축합니다.

이렇게 약 2주일의 내근이 끝
나면 벌통 밖으로 나와 꽃 꿀과 화분을 채
취하는데 그 기간은 약 20일 정도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미련 없이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일했던 집단을 떠나 혼자서 꿀을 빨
다가 죽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밀기때 하
루에 2000내지 3000개의 새로운 벌이 태
어나고 날마다 2000마리 남짓 벌이 죽게
되지만 벌통에는 벌들의 시체가 전혀 없습
니다.

수벌의 운명은 더욱 비참합니다. 분봉시
기에 무정란에서 수벌이 육성되는데 처녀
왕벌이 밀월비행 할 때 가장 높은 곳까지
따라 올라온 수벌과 1회 교미하고 교미 후
그 수벌은 정량이 빠지기 때문에 죽고, 나
머지 수벌들은 벌통 밖으로 강제로 추방되
며 쫓겨난 수벌들은 흡입력이 약해 꽃에서
꿀을 빨지 못하여 아사하고 맙니다.

동물의 제왕이라는 수사자들도 다른 도
전자에 의해 왕위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미련 없이 자기 왕국을 떠나 혼자서 떠돌

아다니다가 얼마 못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들의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하면서 생존하다가 소멸되면 그뿐입니다. 꿀벌에게 사람보다 탁월한 기능이 있고, 사자에게 사람보다 월등한 완력이 있지만, 그들은 자연법칙의 지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제약(制約) 속에서 살다가 소멸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 내시고(창 1,27) 아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 2,7) 사람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자연법칙의 지배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는 큰 선물을 받는 대신, 하나님과의 온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 즉 성령을 받아 들여야 할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지상의 것만으로는 도저히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창조된 그 목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뇌 속에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절망에 빠져 자기 소유 12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을 보았고, 권력 있다는 유명한 정치인

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을 보았으며, 잘 나가는 인기 여배우가 갑자기 자살하여 주변사람을 경악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어릴 때 사고로 두 팔이 잘려나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마저 해결할 수 없는 대학생이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지상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디 고향은 하늘이므로 하늘에서 그 평화를 찾아야 함에도 지상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어둠속에서 이전투구하고 아귀다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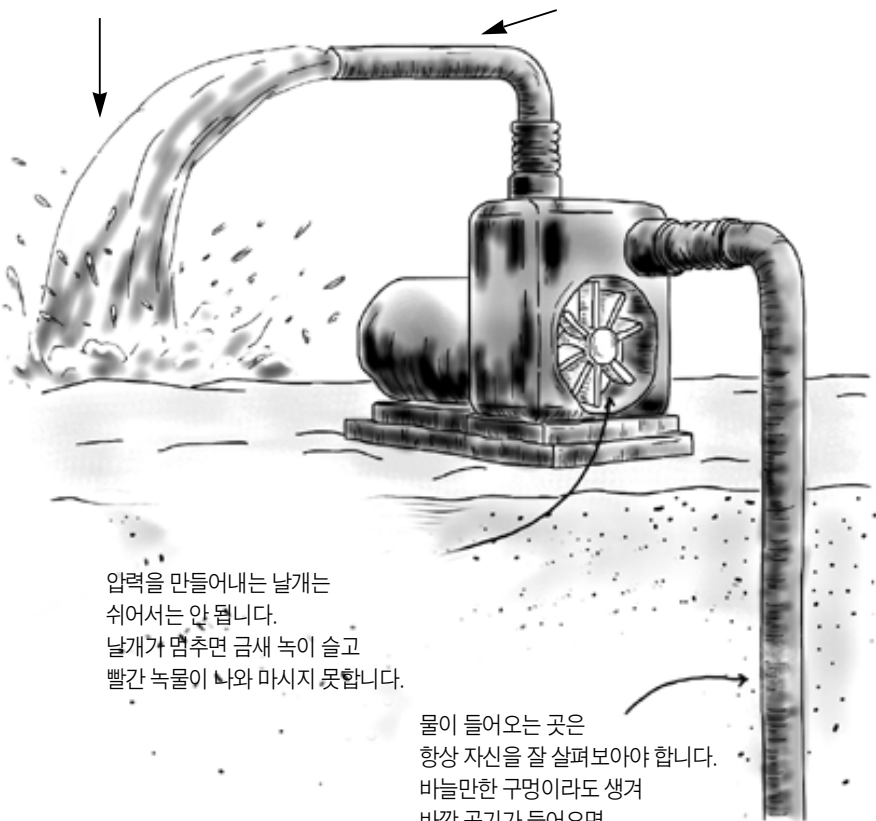
주님은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빛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시어 다시 우리 곁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어둡고 차가운 벽을 깨뜨릴 수 없고, 우리 마음에서 그 무거운 바위를 떨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쥬정이본당 월보 '쥬머리' 4월호

김영곤(아타나시오)

우리가
메마른 대지를
주님 말씀으로 적시는
양수기라면...

물이 나가는 곳은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너무 굵으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너무 얇으면 가는 도중에 터지고 맙니다.



압력을 만들어내는 날개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날개가 멈추면 금새 녹이 슬고
빨간 녹물이 나와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은
항상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늘만한 구멍이라도 생겨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물은 결코 올라오지 않습니다.

문정섭(베드로 · 솔내본당)





간추린 교구 소식

교리교사의 날 행사

지난 6월 5일(일) 초종교 교리교사의 날 행사가 윤호관에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교육국(국장=주목성 신부)이 각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리교육과 교회 복음화에 봉사하고 있는 400여 명의 교사들을 초청했으며 미사 및 장기근속교사 시상과 포크댄스와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진 가면무도회는 이날 행사의 절정을 장식하였다.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교구 사목국(국장=김광태 신부)은 지난 6월 7일(화) 삼천동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 하는 여정'에 대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함께하는 여정' 교리서에 대한 이번 교육에 각 본당의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등 400여 명이 성당을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가톨릭 신학원 종강미사 봉헌

전주가톨릭신학원(원장=김혁태 신부)은 지난 6월 22일(수)부터 각 과별로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성서연수와 남원분원에서는 50여 명의 수료자가 나왔으며, 익산, 군산, 전주 300여 명의 수료자와 함께 20여 명이 졸업하였다.





간추린 교구 소식

레지오 마리에 지도수녀 간담회

6월 29일 전동성당 교육관에서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주관으로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에 지도 수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전주 교구 내 레지오 지도 수녀 30여 명은 오전 강의와 오후 소그룹 토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유향검 사도회 연례 피정

전주 가톨릭 신학원(원장=김혁태 신부)은 파견 교리교사들의 모임인 '유향검 사도회' (회장=한상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3일 천호 피정의집에서 피정을 실시하였다. 사목국장 김광태 신부를 강사로 '이 시대에 파견된 교리 교사'라는 주제로 열린 피정에는 신학원 교리교육과를 졸업한 1기-6기까지의 졸업생 51명이 참석하였다.



레지아 간부 선출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 지도=김광태 사목국장 신부)는 7월 17일 오후 4시 제574차 월례회의 중에 새 레지아 간부를 선출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간부는 제8대 단장에 강상근(미카엘/평화동본당), 부단장 노혁(미카엘/인후동본당), 서기 고충곤(바오로/호성동본당) 씨이다.





백합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수도회

거룩한말씀의회, 경로수녀회, 국제가톨릭형제회까리파스수녀회, 노틀담교육수도회, 마리아의 딸수도회, 올리베타성베네딕도수녀회, 사랑의씨튼수녀회, 살트르성바오로수도회, 서울성가소 비녀회, 성글라라봉쇄수녀회, 미리내성모성심수녀, 성모영보수녀회, 성모카테기스타수녀회, 성 바오로딸수도회,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예수성심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회, 인보성체수도회,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전교가르멜수녀회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성가정의카푸친수녀회

연구소

호남교회연구소, 예수회영성연수원

피정의 집

나바위 피정의집, 천호피정의집, 해월리피정의집

성지

치명자산성당, 숲정이성지, 초남이성지

교육기관

해성중학교, 해성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유치원

전주성심유치원, 전주성모유치원, 군산해성유치원, 군산성심유치원, 익산성심유치원, 김제성모유치원, 원평성모유치원, 정읍성심유치원, 고창샛별유치원, 부안성심유치원, 남원소화유치원, 진안소화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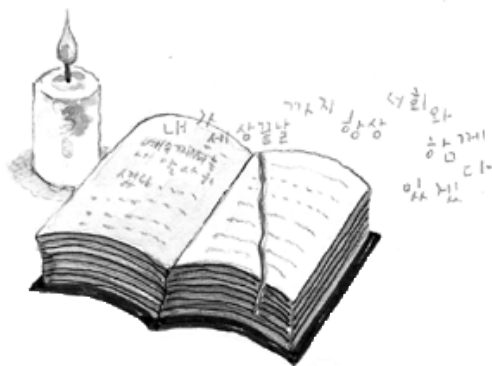
사회복지기관

가톨릭사회복지회사회복지법인성가복지회, 아미고의집, 나누리청소년공부방, 고창어린이집, 팔복성모어린이집, 솔내청소년수련관, 성모노인주간보호센터, 성모양로원, 성요셉동산양로원, 영보은혜의집, 야고바의집, 인보노인종합복지관, 빈첸시오의집, 아가페정양원,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무지개가족, 작은자매의집, 작은천사어린이집, 한우리공동체, 전주 사랑의집, 장애인복지협의회, 가정방문실, 동혜원, 상지원, 익산공소, 신암공소,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고창자활후견기관, 익산성모병원, 남원의료원원목실, 성바오로복지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천주교원목실, 성요셉근로자의집, 천사의집, 사랑의집, 가톨릭 농민회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관심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고통과 외로움으로 황폐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물방울이 되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이 구독하는 한 권의 책, 후원해주시는 성금으로 만들어지는 '쌍백합,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입니다.

후원계좌 :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독자사랑방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이웃들의 사랑,

영혼을 맑게 해준 책 한 권.

아직도 감동의 파문이 남아있는 영화 한편.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림 한장의 추억.

살아가면서 느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연들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분량(A4 1-2매 글자크기 10p)

기쁨과 은총의 삶

임명자수녀(사라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성가가 있다. 수도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내적 여정들을 통해서 좋으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늘 엄격하고 과묵하게 다가왔던 아버지의 상이, 어느날 아침식사에 이웃 할머니를 모셔오라는 심부름을 하면서 깨어지게 되었다. 큰아들,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할머니는 과일 장사를 하는 아들 내외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어르신을 식사시간에 꼭 챙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자주 심부름으로 어르신을 모시러 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날에는 이북에서 사시다 6.25 사건 이후에 남쪽으로 오시게 된 홍할아버지가 여러 개의 방이 있었던 우리집에 세들어 살면서 자식들과 떨어져 사시는 그분을 아버지께서는 역시나 식사시간에 늘 챙겨 합

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 초등학교 때 시골로 이사가면서 그곳에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남매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픈 마음이 컸기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을 때마다, 나와 터울이 그리 많지 않은 그 남매를 집으로 데려와 씻겨주고, 함께 식사도 했던 기억들이 난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어머니께서 간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난 것과 같은 이 일로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계획하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꿈들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었던 수도 성소에 대한 뜻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인생의 여러 갈래에 대해

서 생각하는 시기였기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답을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어르신들에게 주셨던 관심과 배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지향하고 살아야 할 삶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날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께 제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여쭙어 봤을 때 폭 패인 야윈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시며 기뻐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 내재해 있었던 수도성소에 대한 꿈을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해주었다.

매주 주일이면 주보 알림란에 나오는 여러 수녀원의 성소 모임들을 체크하면서 수도원의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내게 맞는 수도원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소담당을 하시는 수녀님과 기도 안에서 피정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이윽고 그렇게 바라고 열망했던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다.

15년이란 수도자의 삶을 통해서 역시나 은총의 삶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첫 소임지로 불러 주신 ‘전주 가정방문실’에서의 소임은 내가 수도자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함께 고민하고 아파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다가온다. 그 힘을 받아 현재 무의탁 어른신들 20분, 치매어르신 4분과 함께 흰 도화지에 일상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전체를 요약해서 표현해 놓은 것과 같은 성가 34장인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즐겨 흥얼거리는 나의 노래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평생 살 집까지 이미 손수 안배해 주셨음을 수도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좋은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혼의 집을 마련해 주셔서요!



엄마 얼굴

서순옥(소화테레사 · 문정본당)

별빛마저 얼음처럼 하얗게 얼어붙은 밤
뽀얀 유리창에 엄마 얼굴 떠오른다
동그랗게 따라그린 보고 싶은 그 얼굴
너무나 그리워서 두손으로 만져 본다

엄마엄마 불러봐도 눈물어린 눈동자로
대답대신 흐느끼며 웃어주는 우리 엄마
울지마세요 울지마세요 저 이렇게 잘 있어요
엄마가 울면 나도 자꾸 눈물이 나니까요



아버지의 자리

기옥란(유스띠나 · 진안본당)

아직도 꿈인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마 밑 의자에 몸을 지탱하시고 “옥냄이 오냐!” 하며 반겨주실 것만 같은데, 이제는 영정사진 앞에서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니요.

싸늘히 누워 있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효도는 별거 아니다.” 하시며,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가 봐야.” 하시던 말씀이. 지금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 하듯이 친정 아버지께 했으면 아마 동네에서 내놓라는 효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자주 올 것 없다. 시 어른들께나 잘 해라.” 하 시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스물넷에 신랑을 만나 마냥 좋아 결혼이란 것을 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했던지……한때 교회에 나갔던 터라 성당이며, 성당의 성모상이며 웬지 맘

이 편치 않았던 차에 혼인강좌를 받아야 한다고, 신부님과 면담을 해야한다고, 또 결혼식하기 전에 관면 혼배도 해야한다고, 또 호적등본도 떼서 성당에 내야한다고, “그 놈의 데는 참 복잡하기도 하네.” 하며 결혼이란 걸 했을 때는 아버지의 자리를 몰랐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좋기만 한 아버지였는데,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빈한한 살림에 엄마만 고생시키는 엄마의 남편으로 보이면서, 죽도록 밟고 죽도록 떠나고 싶었던 아버지였

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이 못난 딸을 변함없이 사랑해주던 그대로 그 아버지였을텐데,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나 봅니다. 통회의 눈물이었는지, 아버지께 대한 미안함이었는지, 아버지를 잃은 서러움이었는지 분간도 못한 채 그땐 그냥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는 비워졌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아 백발이 성성한 엄마, 그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을 볼 때마다 ‘저 주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성당에 모시고 가야할텐데...’ 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아마 저도 이젠 천주쟁이가 다 되었나 봅니다.

“결혼해도 나한테 성당 나가자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라는 내 말에 “알았어. 절대 안 할게. 그런데 아마 나가게 될 걸.” 이렇게 대답하는 신랑의 말에 코웃음을 쳤던 저였는데, 그 복잡했던 결혼을 하고,

단 6개월만에 세례를 받고, 레지오도 나가고,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이라는 신랑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성당을 찾고 성모님을 찾는 걸 보면 틀림없는 천주쟁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빈 자리를 혼자 남은 엄마가 다 채워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쉽지 않을 듯합니다. 언제 아버지 따라간다 나설지 모를 호호 할머니가 다 되어버린 엄마를 찾아 친정집 대문을 열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서부터 아버지의 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빈 자리 옆에 엄마의 더 큰 빈 자리가 생기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줄라 하루라도 빨리 입교를 시켜, 성당에 나란히 앉아 미사 드리는 날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주님! 우리 성당에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엄마자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요”

나의 십자가

김 루시아(금마본당)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힘든 일에 지

치고, 비신자인 남편 때문에 낮빛
한 번 밝지 못한 제 자신을 원
망한 적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늦은 밤 피
곤한 몸을 이끌고 성당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당신의
사랑을 남편에게도 전
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밤 당신께 엎드려 기도합
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나
약하여 가정과 일이란 굴레에
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저를
지배하지만, 그래도 저의 든든한 버팀
목과 같은 당신께서 제 자신을 낮추어 돌
아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항상 주님께
찬미 영광을 올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어
찌 다 알 수 있을까요마는 부족한 저 루시
아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
게도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뜻
을 따라 살려고 보이지 않게 애쓰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과 알지 못하는 모든 신자
들까지도 당신의 자비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할 때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도구
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뒤늦게야 알
고 감사기도를 바칩니
다. 목주 반지를 통해
서, 차에 붙어 있는 고
상을 통해서 당신을 증
거하고, 또 냉담 중인
신자가 다시 당신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인생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결코 삶이 만만하지 않듯이 앞으로의 제
삶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 몫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
고, 항상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땀별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도 힘을 주셔서 당
신의 사랑을 빨리 깨닫게 해 주세요.

저의 신심에 꺼지지 않는 불 밝혀 주시
어 굳센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신앙의 끈이 되어 주시는 대모님께

최옥자(마리아 · 임실본당)

대모님과 인연을 맺은지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챙겨 주시는 대모님을 뵈면서 저희 부부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처음 성당에 나가 예비신자로 교리를 받을 때 처음으로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서먹함을 느끼지 않게 대모님께서서는 저에게 너무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모님께서서는 부부가 같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사실 저희 부부의 대부, 대모님이시자 큰아이의 대부님이시기도 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큰아이의 대부님을 찾고 있을 때 수녀님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대부를 모셔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다르게 영적인 인연을 맺은 대모님 가족과 우리 가족은 하느님의 가족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곳의 전원생활에 반해 아주 정착하고픈 마음으로 작은 집을 장만해 이사했습니다. 그때 대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손수 키우신 커다란 선인장을 볼 때마다 대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전 정말 행복합니다. 그 선인장이 대모님의 환한 미소를 닮은 진한 핑크빛 꽃을 피웠을 때 우리 가족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대모님, 성당을 들어서면 대모님을 찾느라 눈길이 더욱 빠빠지는 저의 눈빛을 당신은 느끼시나요? 대모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대모님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를 시작하는지... 저의 신앙의 끈이 되어 주시는 당신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주저함없이 당신께 달려가 이야기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당신이 있어 전 많은 힘을 얻습니다.

정말 좋으신 영적인 어머니를 저에게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대

부,대모님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대녀를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저도 대모님처럼 좋은 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모님께 많은 사랑을 제 대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대모가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저의 대모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일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세탁소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이렇게 영적인 어머니와 딸로 인연을 맺게 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을 주시는 대모님을.....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저의 영원한 신앙의 끈이 되어주시는 대모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미리보는 교구 게시판

10월

- 제5회 요한루갈다제 : 10월 1일(토)
- 청년성서 하반기 그룹 봉헌미사 : 10월 2일(주일) 덕진
- 교구 성직자 위령 월레미사 : 10월 3일(월) 오전 11시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레미사 : 10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교구 사제 월례묵상회 : 10월 6일(목) 오전 10시 나바위
- 청년 떼제기도 : 10월 7일(금) 오후 7시 센터
- 레지오 1단계 교육 : 10월 8일(토)~9일(주일) 오후 7시 센터
- 중·고 교사 아카데미(2차) : 10월 9일(주일) 센터
- 본당 여성부장 피정 : 10월 12일(수)~13일(목) 나바위
- 김대건신부 나바위 입국 160주년 기념행사 : 10월 12일(수) 오전 10시 나바위
- 하나회 피정 : 10월 15일(토)~16일(주일)
- 교구 기자단 모임 : 10월 15일(토) 오후 5시 센터
- 본당 홍보분과위원 연수(3차) : 10월 16일(주일) 센터
- 여성 88차 구르실료(실버 꾸르실료) : 10월 20일(목)~23일(주일) 천호
- 신학생 부모피정 : 10월 22일(토)~23일(주일)
- 혼인강좌 : 10월 30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빛따라 축제

11월

-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 11월 2일(수) 오후 2시 치명자산성당
-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 11월 3일(목) : 오후 2시 중앙
- 애령회원 피정 : 11월 5일(토)~6일(주일) 나바위 / 초등부 성탄연수 / 빛무리 발간
-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및 빈첸시호회원 피정 : 11월 6일(주일) 오전 10시 천호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레미사 : 11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레지오마리에 관리 평가 및 간부 연수 : 11월 12일(토)~13일(주일) 천호
- 라헬기도모임 : 11월 17일(목) 생명을 위한 미사 오후 1시 30분 센터
- M.E 106차 주말 : 11월 18일(금)~20일(주일) 천호
- 제4기 교구 기자단 교육 : 11월 19일(토)~20일(주일)
- 청년 신앙학교(2차) : 11월 25일(금)~27일(주일) 나바위
- 고3피정(1차) : 11월 26일(토)~27일(주일) 전주 유스호스텔
- 혼인강좌 : 11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12月

- 해성학원 이사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청년 떼제기도 : 12월 2일(금) 오후 7시 센터
- 구역분과위원 피정 : 12월 3일(토)~4일(주일) 나바위
- 전가대원 가을학기 종강미사 : 12월 4일(주일) 센터
- 참사회 : 12월 6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 사제 · 부제 서품식 : 12월 8일(목) 오후 2시 중앙
- 선택 봉사자 피정 : 12월 10일(토)~11일(주일) 토마스 쉼터
- 예비신학생 월모임 : 12월 11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가정성화 미사 : 12월 12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성당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 12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청소년교육국 제 단체 송년 감사미사 : 12월 17일(토) 센터 /교구 기자단 모임 오후 5시 센터
-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 1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사정에 따라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

The random Acts of Kindness · 성하은 / 열린 / 7,500원

이웃을 돕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매력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나누고 있어 선물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내 발의 등불

날기유메트 / 성바오로 / 8,000원

삶의 희망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선선한 바람에서 자유를 느끼고, 시원한 바다에서 희망을 찾고,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비유와 상징으로 엮은 25편의 우화에서 하느님의 참뜻을 배우고, 세상과 만나며, 나와 이웃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기쁨에 찬 가난

Lothar Hardick ofm / 익산 성글라라수도원 / 13,000원

가난의 기쁜 소식을 말로만 선포해서는 사람들을 쉽게 이 해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가난을 말하면 우선 포기과 희생, 궁핍함을 연상한다. 기쁨이 가난의 이런 선입견을 없애고, 넘치는 생동감과 가난의 가치를 인정하는 확신감과 설득력을 줄 것이다.





강 건너 저편

신중신 / 바오로 딸 / 8,000원

이 책은 조선교구 창립을 앞당긴 순교자 정하상 바오로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느님의 구원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하게 재조명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물음을 던지게 한다.



나가사키의 노래

폴 그린 / 바오로 딸 / 9,000원

과학자이며 인도주의자인 나가이 다카시의 전기이다. 일본 교회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화를 추구한 한 인간의 고뇌와 원폭의 결과가 인류사에 미친 영향을 한 눈에 보게 해 준다.



아름다운 사람아

노순자 / 열린/ 6,000원

고통없는 삶은 없는가 보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아픔을 가슴의 상처로 안고 살고, 또 누구는 어린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고...이 책은 이런 인생의 소유자 9인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모님 시리즈

비디오 / 성 바오로 / 25,000원

성모님 시리즈는 성 바오로에서 출간되고 있는 <성모님의 손발은 왜 거칠어졌을까?>를 각색하여 만든 영상물이다. 성모님께서는 정의 거울, 천사의 모후 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보살펴 주심을 보여준다



미라클 메이커

비디오 DVD / 가나시청각 / 27,000원

신약성서 마태오 복음 9장 18-26절과 마르코 복음 5장 21-43절, 그리고 루카 복음 8장 40-56절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되 시간 공간적인 흐름을 넘어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비디오 / 바오로딸 / 17,000원

1979년 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후 27년간의 재임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고 전한 카롤 보이티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임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2005년 4월 2일 영면하신 교황은 단지 가톨릭교회의 수장일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정의와 선의 상징이 되었다.



쌍백합을 읽고...

◆특집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에 실린 최중수 신부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통증이 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마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한도 한 번 해드리지 못한 동병상련의 마음에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더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마음이 따뜻한 글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서신동본당 미카엘라)

◆'쌍백합'이 발간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특히 '다시 읽고 싶은 글모음'에 실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진솔한 이야기들은 타성에 젖어가는 제 신앙에 성령의 단비를 뿌려주는 것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림본당 수산나)

◆해위 성지순례기의 모세의 여정을 따라 글을 읽으면서 성서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계명을 받은 모세처럼 낙타를 타고 시나이 산에 올라 장엄하게 펼쳐지는 일출도 보고 하느님의 음성도 듣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마리아)

◆권이복 신부님의 '잊지 못할 사목 일기'에 실린 천호성지의 이야기는 꼭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구수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순교성인들의 열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다르다는 자부심과 함께 하늘까지 감동시킨 정결하신 굴라라 수녀원 수녀님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아동본당 은나)

◆쌍백합이 봉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격려할 일이지만 꼭지가 너무 많고, 사진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좀더 세련된 편집을 기대해 봅니다.

(K신부)

'쌍백합'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느낀 좋은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합은 항상 귀를 크게 열어 놓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 들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흥보국 쌍백합 편집실 T063-285-0041

E-mail : ssbh114@hanmail.net

하느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발행일 | 2005년 9월 10일
발행처 | 천주교 전주교구
발행인 | 이병호 주교
주 간 | 서석희 신부
부 주 간 | 박향숙 수녀
편집장 | 양지향
편집위원 | 김계숙, 심연무, 안여진,
이규현, 이덕자, 허 남,
황의성, 박종희
취재 | 김혜선, 박미경
일러스트 | 황의성, 문정섭
사진 | 이규현, 유백영
서장경, 최경숙
봉사자 | 나미란, 남상순, 김길순

천주교 전주교구

☎ 061-81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T. 063-285-0041~3

F. 063-283-9365

<http://www.jcatholic.or.kr>

e-mail : ssbh114@hanmail.net

인쇄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 063-275-4000

e-mail : shina321@chol.com

값 2,500원

‘쌍백합’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쌍백합’이 2005년 가을호(제 1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백합’과 함께 참다운 삶과 신앙의 길을 걸어 정기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쌍백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기구독 하실 분은 이번 호에 첨부된 정기구독엽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후기

9월 순교자 성월과 더불어 레지오 마리에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생활 속의 순교’를 특집으로 꾸며 보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놀랄만한 토대를 이룬 것은 선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봉사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레지오 단원들의 눈물겨운 성모님 사랑과 순교정신이 아니었을까?

결실의 계절 이 가을, 신앙의 열매로 알차게 꾸며진 ‘쌍백합’으로 우리 영혼의 집에 감사와 사랑의 등불을 밝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편집위원 일동〉



로고 의미

‘쌍’자의 ‘ㅍ’은 우리에게 참 삶의 의미를 보여주신 전주교구의 유요한·이루갈다 두 순교자의 무덤, ‘ㅊ’는 십자가와 순교를 상징하는 칼, ‘ㅇ’는 성체를 형상화하였으며 글씨 색깔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의 이미지를 살려 흰색으로 표현하였다.

로고 디자인 : 고미란(베로니카)